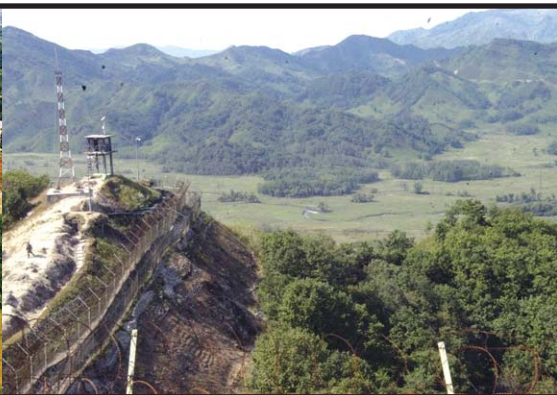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Contents

제1장 DMZ의 과거와 현재

1. DMZ는 어디일까 / 8
2. DMZ 자연생태계의 오해와 진실 / 13
3. 분단이 남긴 뜻밖의 선물 / 16



제2장 DMZ 여행

1. 첫 번째 여행 / 모든 강은 한강으로 흐른다.
문산 ⇒ 연천 ⇒ 철원
 - (1) 길가의 민들레는 '서양민들레' / 25
 - (2) 판문점 날문은 여담이야 한다 / 27
 - (3) 잊혀진 전쟁, 잊을 수 없는 전쟁 / 31
 - (4) '신라 마지막 임금'의 고랑포 부활 / 33
 - (5) DMZ가 인류의 조상을 낳았다! / 36
 - (6) 지뢰는 지능을 갖춘 고등생물 / 38





2. 두 번째 여행 / 궁예가 온 길, 송강이 간 길
철원 ⇒ 김화 ⇒ 화천

- (1) 궁예, 한반도 단전에 궁궐을 세우다 / 41
- (2) 철원평야에 묻힌 '전설의 도시' / 44
- (3) 자본주의 건축 그리고 사회주의 건축 / 47
- (4) 민들레 벌판에 민들레는 피지 않는다 / 50
- (5) DMZ에 묻혀있는 박수근 그림 향아리 / 51
- (6) DMZ에서는 철새도 인간이다 / 53

3. 세 번째 여행 / 흐르지 않는 강
화천 ⇒ 양구

- (1) 6·25 최초의 전투, 최후의 전투 / 58
- (2) 함재기, 화천담에 어뢰를 명중시키다 / 60
- (3) 북한의 '임남 언제', 한국의 '평화의 담' / 63
- (4) 평화대사가 된 수달 '한강이' / 65
- (5) 북한강에 내려앉은 막간의 평화 / 68






Contents

4. 네 번째 여행 / 국토 정중앙

양구 ⇒ 인제

- 
- (1)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71
 - (2) 수입천 두타연의 열목어 전설 / 73
 - (3) 노병, 죽어서 전장으로 돌아오다 / 75
 - (4) 개느삼, 온 세상에 오직 너 하나! / 77
 - (5) 누가 용늪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나? / 80
 - (6) 편치볼은 운석 구덩이 / 82
 - (7) 그때 DMZ는 산(山) 그림자에 숨어 있었다 / 85

5. 다섯 번째 여행 / 모든 길은 금강으로 통한다

인제 ⇒ 고성

- (1) 백두대간의 빨치산 루트 / 91
- (2) 서해에선 어리로, 동해에선 해안포로 / 93
- (3) 바다가 삼킨 해상테러 일지 / 97
- (4) 해금강에서 해금강 길을 묻다 / 99
- (5) 권력자마저 추억으로 만나는 화진포 / 102
- (6) 남강 2백리에 펼쳐진 자연사 박물관 / 104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제3장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1. 문학 속으로 들어온 DMZ / 110
2. 영화 속으로 들어온 DMZ / 113
3. 정책 속으로 들어온 DMZ / 11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Chapter.

I

DMZ의 과거와 현재



1. DMZ는 어디일까
2. DMZ 자연생태계의 오해와 진실
3. 분단이 남긴 뜻밖의 선물





DMZ의 과거와 현재

1. DMZ는 어디일까



군사분계선과 DMZ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유엔군사령부의 윌리엄.K.해리스 중장과 북한의 남일이 1952년 휴회기간에 공산군측이 건립한 목조 건물로 들어갔다. 10시 1분 그들은 쌍방이 준비한 18개 문서 중의 첫 번



정전협정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측인 북한 및 중국 대표가 6·25전쟁의 종지를 합의한 협정이다. 1951년 7월 8일 개성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한 이래 159회의 본 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등 765회의 회담을 거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은 한글,영문,한문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전쟁포로의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째 문서에 서명했다. 그들이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데 12분이 걸렸다. 서명이 끝나자 그들은 각자 일어서서 아무런 말도 없이 걸어 나왔다. 그후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그 문서들을 김일성(金日成), 팡덕회(彭德懷), 마크.웨인.클라크 장군이 각각 서명했다. 웨인.클라크 장군은 정전협정의 문서들을 서명하는데 쓰라고 과거 파카만년필 회사에서 특별히 보내 준 만년필을 치우면서 “나는 이 시간에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략- 판문점에서 조인이 끝난 12시간 후 전선의 고지들은 조용해졌다. 바다에서는 배들이 북한의 잿빛 물에서부터 퇴각을 하고, 은빛 비행기들은 그들의 비행장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제 전쟁은 없다. 그러나 평화도, 승리도 없다. 이것이 휴전이다.」 페렌바크(T. R. Fehrenback)는 그의 책 ‘어떤 전쟁’(This Kind of War)에서 **정전협정**의 체결 순간을 그렇게 묘사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전쟁이 시작되지 3년이 조금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이 그려지고 이를 경계로 남북으로 2km씩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 **DMZ**)가 설정되었다. DMZ는 임진강변에서 출발해 동쪽을 향해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가 동해안에서 끝나는 폭 4km, 길이 248km의 띠다. 그 띠는 6개의 큰 강을 건너고, 1개의 평야를 횡단하며, 2



군사분계선 / DMZ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 MDL)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그 길이는 155마일(248km)로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간성 북방에 이른다. 군사분계선에는 한글과 영어로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라고 쓰인 뜻말이 1,292개가 세워져 있다.

DMZ(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적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쪽 후방 2km(남방한계선), 북쪽 후방 2km(북방한계선) 내에 설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 내에서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개의 산맥을 타 넘어가는 동안 별판과 산기슭, 강 유역에 70개 마을을 가둬두고 있다. 임진강 하구의 정동, 이 마을은 군사분계선 표지물 제0001호가 꽂혀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 시작된 DMZ는 군사분계선 마지막 표지물 제1,292호가 세워져 있는 동해안 동호리까지 이르게 된다.

휴전선 남쪽 5~20km 밖에는 **민간인 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 CCL)이란 또 다른 선이 그어졌다. DMZ는 쌍방이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한 지대다. 그러나 민간인 통제구역은 이 약속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말 그대로 민간인이 함부로 거주하거나, 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



민간인 통제선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은 DMZ 남방한계선 남쪽 5~20km되는 지역에 설치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며, DMZ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구역을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1954년 2월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확정된 구역이며, 민간인이 이 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발행하는 민간인 출입허가증이 필요하다.

든 지대다.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 사령관은 민간인의 귀농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에 민간인 출입을 금지시켰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휴전선을 따라 총면적 1,528km²(경기도 480 km², 강원도 1,048km²)에 이르는 또 다른 띠가 형성됐다. DMZ보다 더 두꺼운 또 다른 완충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경기도 강화·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소위 ‘접경지역’의 213개 리가 이 띠 속에 갇히게 됐다. 1958년 6월부터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됐다. 한국군은 군 작전이나 군사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을 허용했다. 그리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휴전선 너머에서 북한은 계획적인 ‘선전촌’을 건설해 놓고 휴전선까지 바짝 다가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북한은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선전하면서 놓고 있는 땅도 개간하고 있었다. 우리쪽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 졌다. 1959년부터 민통선 내에 99개의 자립 안정촌이 건설됐다. 1968년~1973년에는 12개의 재건촌, 2개의 통일촌이 더 건설됐다. 대성동 마을(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사민(私民)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DMZ에 건설한 마을이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인천항에서 직선거리로 191.4km, 뱃길로 228km나 되는 멀고 외딴 섬이다. 그러나 이들 서해 5도는 결코 외딴 섬이 아니다. 해안선 길이가 56.75km나 돼 한반도에서 9번째로 큰 섬, 주민 4,300여명이 살고 있는 백령도는 울진반도 장산곶에서 17km,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 월례도에서 8km, 해안의 작은 움푹임도 육안으로 식별되는 육지와 지척 거리의 섬이다. 그러나 그 좁은 바다 틈새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이 지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백령도의 까나리, 조기, 꽃게잡이 어선들은 최북단 두무진 포구에서 1.4km이상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측은 서해의 백령도와 이에 딸린 작은 섬을



북방한계선(NLL)



1953년의 정전협정에서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였다. 이에 유엔군은 함정 및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을 설정하였다. 북한은 1959년판 「조선중앙연감」에 NLL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표시하였으며, 1984년 북한이 우리에게 수재물자를 지원할 때 양측의 경비함정 등 호송선단이 NLL선상에서 북한의 수재물자 수송선박을 인계인수함으로써 북한도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군사분계선과 썩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해상경계선인 NLL을 지속적으로 불법 침범해 왔으며, 이로 인해 1999년 6월, 2002년 6월, 2009년 11월 등 세 차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장악하면 훗날 일어날 군사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면 공산군측은 남한의 빨치산과 이를 지원하는 지상군 개념의 대남 전략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정전협정서 별도조항(제2조 제13항의 B)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북방 및 서방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군사 지휘 하에 둔다. 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한다’에 동의했다. 서해 5도는 그렇게 설정 배경이 DMZ와 다르다.

서해 NLL, 한강 남쪽 하안, 육지의 민간인 통제선 그리고 동해 NLL 북쪽은 누구도 임의로 갈 수 없다. 그 제한선은 하늘에도 적용된다. 어느 항공기도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 운항할 수 없다.

2. DMZ 자연생태계의 오해와 진실



DMZ 자연생태계 조사는 정전협정 직후부터 자원 조사 명목으로 실시되었다. 국제기구에 의한 DMZ 생태 조사도 있었다. 1954년 이래 DMZ 자연생태계는 꾸준히 조사를 받아 온 셈이다. DMZ 자연은 사실상 충실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검진 결과가 그곳은 ‘인간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은 자연의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일까? DMZ 내부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니까, 거긴 정말 자연 질서가 충실히 유지되는 자연의 천국이어서 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믿어도 좋은 것일까?

환경부의 DMZ 조사를 통해 중부지역 서식 동·식물은 총 450종으로 서부지역 348종보다 100여종 이상 더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역은 철원 역곡천 유역, 김화 남대천 유역 등 총 11개소의 조사에서 식물 334종과 동물 11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한라산에는 1,800여 종, 지리산에는 1,5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오대산이나 치악산 그리고 DMZ와 위도가 비슷한 설악산에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4,000여 종류의 식물 중 25%, 95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국립공원 지역의 식물 분포 상황만으로 DMZ 자연생태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DMZ 자연생태계의 실상이 과장된 채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DMZ 전경

DMZ는 모든 자연의 내용물이 풍부하게 담긴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무엇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게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곳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있기

를 바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남북 분단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때 묻지 않은 DMZ 자연을 얻었다는 반사적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그런 DMZ의 환상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DMZ 자연생태계를 ‘손 하나 까딱 안 한’ 원시성 자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곳이 혹독한 전쟁 간섭, 그 후 오랜 세월 냉전 간섭을 받아온 아주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인간 간섭을 전혀 받지 않은 곳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간섭에 지쳐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과거 그곳은 농사가 주업이던 한국 중부지방의 한 지역이었다. 들판과 골짜기는 물론 산비탈은 농민들에게 논이나 밭을 일굴 자리를 내줬으며, 마을 근처 숲은 전통적인 온돌 난방의 연료림이 돼줬다.

전쟁이 이 인간과 자연의 공생 열개를 깨뜨려버렸다. 6·25전쟁은 37개월 2일 만에 끝났다. 전선은 이 기간의 3분의 2를 지금의 DMZ 일대에서 소비했다. 마을과 농경지, 숲은 남김없이 파괴됐다. 그곳에 살던 사람은 쫓겨났으며, 달아날 수 없는 동물은 그 자리에서 희생됐을 것이다. 이 기간 전투의 특징은 높은 산을 먼저 빼앗으려는 ‘고지전’이었다. 그런 전투방법 때문에 높은 산의 숲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희생됐으며, 성한 나무나 동물이라 해도 모두 화약 냄새를 맡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곳에서 전투를 한 군인만큼이나 땅, 나무, 산 짐승, 새, 물고기도 지쳐 있었다. 지친 자연이 이번에는 냉전 간섭에 시달려야 했다. 자연 입장에서 DMZ 그 자체가 장애물이다. 한반도 허리를 횡단하는 DMZ는 산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는 동물의 이동로를 차단했다. 또한 발이 없는 식물은 동물이 이동 시키게 마련 이듯 식물의 이동도 단절됐다.



DMZ 철책선

6·25전쟁으로 파괴된 DMZ 숲은 회복해 가기도 전에 주둔군의 각종 군사시설 구축과 군사작전, 난방과 취사 그리고 주거를 위한 자원으로 희생됐을 것이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은 현 DMZ 일대에 총길이 4,000km에 이르는 소위 ‘지하만리장성(地下萬里長城)’을 구축했다. 1952년까지 갯도 7,789개, 길이 198.7km를 구축했고 업체호 75만개, 유개 및 무개 참호 길이 3,420km를 작업했으며, 북한군도 총 1,730개의 갯도 88.3km, 각종 업체호·참호 260km를 구축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지고 있다. 그런 군사시설은 휴전과 함께 곧바로 북한군의 시설로 활용됐을 것이다.

북한군은 아직도 재래식 화전농법으로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의 집단농장은 녹음이 우거진 6월까지도 숲이 불타고 있다. 화전농법은 숲을 불태움으로써 시계와 사계를 확보하고, 식량도 조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DMZ 숲은 그런 화공 전쟁에 희생되고, 그 숲의 동물들은 남북한 심리전이 벌이고 있는 소리의 전쟁 피해당사자였으며, 더러는 지뢰를 밟아 희생되기도 했을 것이다. DMZ 자연을 보호할 어떤 법도, 제도도 없었다. 오로지 냉전 간섭이 DMZ 자연을 구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DMZ 자연은 천이가 진행되지 않았다. 냉전 간섭에 적응, 즉 DMZ에 길들여지거나 도태되거나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생태학적으로 DMZ의 특징은 능선 신갈나무, 골짜기의 버드나무·신나무·오복리나무, 넓은 개활지의 초지와 습지, 자랄 대로 자란 아카시아나무 숲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MZ에 더 눈을 가까이 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곳은 외래식물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이 대군락을 이루면서 전 국토에 종족을 번식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울창해야 할 숲이 훼손된 곳은 초지가 형성됐고, 그 풀밭으로는 고라니떼가 몰려들고 있다. 멧돼지 일가가 군인들의 ‘잔밥’을 구걸하거나, 천연기념물 산양이 군인들이 던져주는 배추 덩이에 폭설기를 넘기고 있으며, 1993년 겨울 DMZ에 첫 출현한 몽골산 독수리

때는 인근 축산농가에서 공급하는 폐기물로 겨울을 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곳, 오소리가 소를 물어뜯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후에는 반드시 광견병이 발생하는 곳도 그곳이다.

DMZ는 그토록 인간이 전쟁으로 파괴하고 간섭한 자연이 스스로 적응하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뜻밖의 자연’이 있는 곳이다. 이 독특한 DMZ 자연을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 자연생태계공원’으로 고쳐 불러야 할 것이다.

3. 분단이 남긴 뜻밖의 선물



DMZ에서 바라 본 북한 땅은 색깔이 변해 있다. 금강산 가는 배를 탔던 남한 관광객들은 장전항의 무채색 풍경, 짙은 회색 도시에 늘 질려 있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눈에 비친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고암산 검은 바위를 닮은 개성은 연극 세트처럼 서 있었다. 그 도시들이 지금 회색 색깔을 벗겨내고 밝고 환하게 채색돼 있는 것이다. 처음엔 개성공단 공사장의 주황색 펜스, 푸르거나 오렌지색 포장을 씌운 북으로 가는 트럭행렬, 관광버스 행렬이 DMZ의 경직된 분위기를 벗겨내고 있었다. 단절에서 소통으로, 교류로 이어지던 DMZ 분위기는 최근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다시 얼어붙었다.

DMZ(Demilitarized Zone), 즉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의 지도를 펼쳐놓고 그 입체적 지도 읽기를 해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 1953년 7월27일 이후, 그 곳에서는 시간이 정지해 버렸다. 살아있는 모든 것 뿐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박제가 돼버렸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결코 시간이 정지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게 박제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곳은 인간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동안 ‘전혀 뜻밖의 세계’로 변해 버렸다. 생태적, 문화적 변이가 이뤄낸 ‘전혀 뜻밖의 세계’가 반세기 시공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 자연

사적 기록들을 찾아 읽는 것이 아마 DMZ의 입체적 지도읽기 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DMZ를 너무 평면에 가둬두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DMZ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첫째, 그곳은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이다. DMZ는 동서 두 진영 20여 개국이 전쟁을 치렀던 곳이다. 이토록 다양한 민족, 국가가 한 자리에서 전쟁을 한 경우는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다. 따라서 모든 고지, 벌판, 강 등의 전적지는 그 자체가 군사박물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개선하고 개량된 동서 두 진영의 최첨단 무기가 '전시'되고 있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갖가지 전략과 전술이 짜여지고 실천되는 곳이자, 군인들의 군복과 계급장, 내무생활과 군기, 병사들의 먹고 자는 방법 등의 변천사가 아로새겨져 있는 곳이다. 한국군과 북한군,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군대에 관한 모든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곳이다. 온갖 전쟁의 도구와 전략과 전술을 모아다 놓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둘째, 그곳은 냉전 사회학 교실이다. 사민(徙民)의 사전적 의미는 '백성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적 이주'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 사민정책은 20세기 DMZ일대에서도 대대적으로 원용됐다.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까지 DMZ 내에만 약 80개의 마을이 묻혀있다. DMZ 밖 민간인 통제구역에도 100여 개의 빈 마을이 있었다. 그 빈 자리를 개척민들로 채운 것이 민통선 이주정책이다. 민통선 범위를 가장 넓게 적용하던 1983년 현재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의 민통선 북방지역 81개 지역에는 총 8,799세대 3만 9,72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들 20세기 판 '사민'들이 민통선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습관과 사고, 풍속, 가족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질문화와 군사문화가 뒤범벅되고 동화돼 마침내 하나의 문화권을 빚어냈다. 민통선은 한국의 제3지대다. 인류사회학 교실이자 한국판 멜팅포트(Melting Pot)다.

셋째, 그곳은 한국사의 현장이다. 궁예는 서기 894년 10월 명주(강

릉)를 장악했다. 10개월 후 그는 홀연히 철원에 나타났으며 이듬해 도읍했다. 그가 어느 길로 철원으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자취가 묻어있는 옛 인제, 화천, 금성, 금화를 징검다리로 연결하면 그가 간 철원 가던 길이 어렴풋이 드러난다. 1,000년 전 그는 대체로 지금의 DMZ를 따라 동에서 서로 횡단해 철원 풍천원, 지금의 DMZ 한가운데 도읍을 정했을 것이다. 역사책 밖에서 그런 상상도 가능한 것이다. DMZ는 그렇게 미발굴 한국사의 현장이다.

넷째, 그곳은 근대사의 증언대이다. 철원평야에 묻혀있는 구 철원 읍은 1940년 현재 인구 3만7천명이 상주했다. 신기루처럼 사라진 일본의 계획도시 유적이다. 철원 노동당사와 승일교는 해방공간에 설계됐거나 세워진 남북한 통틀어 그 자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1948년 북한에 의해 설계된 승일교와 1996년 남한에 의해 설계된 한탄대교는 지금 한탄강 여울목에서 자본주의 건축과 사회주의 건축이 돼 나란히 서 있다.

다섯째, 그곳은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 자연생태계 공원이다. 그곳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곳이기는 커녕 지독한 냉전간섭을 받은 땅이다. 따라서 그곳의 자연은 결코 교과서대로 천이(遷移)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DMZ에 길들여지며 ‘전혀 뜻밖의 자연’이 됐을 것이다. 그곳의 자연을 이제 냉전 자연생태계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DMZ가 ‘자연의 보고’인 것은 그곳엔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 자연생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섯 장의 그림들을 짜 맞추면 놀랍게도 DMZ는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DMZ를 우린 ‘20세기가 지구에 남긴 냉전유적’, ‘분단의 반사적 이익으로 선물 받은 자연문화 유산’으로 고쳐 불러야 할 것이다.

오래 전 동서냉전 구도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DMZ는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선이다. 따라서 이 전선의 일 거수 일 동작은 늘 ‘Cynosure(만인의 주목거리)’가 돼왔다. 1968년 1월 23일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서 **피**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은 1968년 1월 미국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원산 앞바다 공해 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사건이다. 북한은 납치 후 11개월 후에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나포 중 사망한 1명의 유해를 송환하였다.

랍된 일이나,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은 세기의 사건이었다.

무엇이 DMZ를 지구촌의 주시 대상의 중심에 갖다 놓았을까? 아마 한 때 지구촌 25개국이 각축했던 세계사에 유례없는 전쟁터(戰場)가 맺어놓은 태생적 관계일 것이다. 6·25전쟁에서 DMZ는 전쟁 당사국인 남북한, 유엔군측 참전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그리고 공산군측에서 중국, 간접지원국인 구소련이 참전해 전쟁을 마무리했던 지구촌 최대의 전쟁터였다.

6·25전쟁의 3년간에 걸친 전화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다. 전투병력의 손실은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 공산군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국군 90만 명(중국측 13만명 주장)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전쟁기간 중 우리나라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군측 초소 부근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반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 50~60명에게 도끼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전투기, 항공모함을 출동시키는 등 전쟁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유감을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유엔군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 이후 9월부터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남과 북의 분할경비로 변경되었다.



6·25참전국 현황-전투부대 파견국

국가명	참전 연인원(명)	국가명	참전 연인원(명)
미국 	1,789,000	터키 	14,936
영국 	56,000	타이 	6,326
오스트레일리아 	8,407	그리스 	4,992
네덜란드 	5,322	남아프리카공화국 	826
캐나다 	25,687	벨기에 	3,498
뉴질랜드 	3,794	룩셈부르크 	83
프랑스 	3,421	콜롬비아 	5,100
필리핀 	7,420	에티오피아 	3,518
총 계	1,938,330		






※ 출처 :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www.koreanwar60.go.kr

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모두가 그 전쟁을 잊어도 최소한 지구촌 25개국 260만 명의 희생자 가족의 가슴 속에서는 떨어낼 수 없는 전쟁이다.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 지구촌 반대편과 가교가 이어지는 전혀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25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에티오피아 ‘각뉴(Kagnew: 물리치기 어려운 적을 궤멸시킨다) 대대’는 1951년 화천



6·25참전국 현황-의료지원 및 시설파견국

국가명	참전 연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스웨덴 	1,124	적십자병원
인도 	627	제60야전병원
덴마크 	630	병원선
노르웨이 	623	이동 외과병원
이탈리아 	128	제68적십자병원
총 계	3,132	-

※ 출처 :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www.koreanwar60.go.kr



6·25전쟁의 인적피해 현황

▶ 한국군 및 유엔군 피해

구분	계	전사	부상	실종/포로
계	776,360	178,559	555,022	42,769
한국군	621,479	137,889	450,742	32,838
유엔군	154,881	40,670	104,280	9,931

* 공산군 피해 : 2,035,000명

▶ 남북한 민간인 피해

계	남한				북한
	소계	사망/학살	부상	납치/행불	
2,490,968	990,968	373,599	229,625	387,744	1,500,000

* 피난민(320만명), 전쟁미망인(30만여명), 전쟁고아(10만여명)

※ 출처 :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 www.koreanwar60.go.kr

군 '봉당덕리 전투'에서 첫 전사자를 냈다. 먼저 파견된 제1각뉴 대대 1,185명 가운데 47명이 화천지역 전투에서 전사했다. 제1각뉴 대대 소속 병사들의 손자·손녀 61명은 화천군이 매달 보내는 250만원의 보은의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다. 화천군은 2명의 공무원을 에티오피아에 파견, 전국을 누비며 참전용사들의 후손을 찾아냈다. 장학금을 받은 어린 학생들이 최근 화천군청에 편지를 보내왔다. "한국에서 전사하신 우리 할아버지들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들은 한국을 60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 기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싶은 나라로 가슴에 새길 것이다.

DMZ는 스토리이다. 6·25전쟁과 그때 희생된 이들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후 반세기 동서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 상황을 고스란히 대변한 냉전 다큐멘터리이다. 그 스토리를 지구촌 25개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DMZ는 지구촌 어디와도 통하는 네트워크다.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Chapter.

II

DMZ 여행



1. 첫 번째 여행 / 모든 강은 한강으로 흐른다.
문산 ⇒ 연천 ⇒ 철원
2. 두 번째 여행 / 궁예가 온 길, 송강이 간 길
철원 ⇒ 김화 ⇒ 화천
3. 세 번째 여행 / 흐르지 않는 강
화천 ⇒ 양구
4. 네 번째 여행 / 국토 정중앙
양구 ⇒ 인제
5. 다섯 번째 여행 / 모든 길은 금강으로 통한다
인제 ⇒ 고성





DMZ 여행

1. 첫 번째 여행 / 모든 강은 한강으로 흐른다.
문산 ⇒ 연천 ⇒ 철원



접경은 정말 멀지 않다. 김포대교에서 삼십오리. 한강 민통선, 어로 한계선이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유리에 그어져 있다. 한강어부들의

자망어선 고기잡이는 거기서 끝이다. 송어, 농어, 웅어, 참게에 한강 노다지 황복이 걸려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21세기 한강은 거기가 끝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그럴 뿐이다. 태백산맥 금대산 검룡소, 금강산 연대봉에서 시작된 두 샘이 천 리길 물줄기를 죄다 받아 담고도 한강은 아직도 성이 차지 않은 게 틀림없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옛날 조강나루. 거기서 북에서 넘어온 물줄기, 남에서 흘러든 물줄기, 300여 개 개울들도 주름살을 단 임진강을 만난다. 철원 민들레 벌판에서 DMZ를 넘어온 한 많은 한탄강까지 뒤섞여 그 강이 한강을 만날 때는 잃었던 아버지의 품을 찾듯 설움에 겨워 어깨를 들먹인다. 여기서부터 한강은 조강(祖江)이라고 부른다.

예성강은 고려의 강이다. 그 강조차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한강에 몸을 섞어야 한다.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에 이어 막내 예성강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흐르는 모든 강물은 조강에서 한데 모여 강화만에서 일 천 삼 백리, 514km의 여정을 마감한다.

(1) 길가의 민들레는 ‘서양민들레’

「길가의 민들레는 노랑저고리/ 첫 돌맞이 우리아기도 노랑저고리/ 아가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서당 마당가에 피는 앓은뱅이꽃. 강소천의 동요에서도 민들레는 이른 봄



서양 민들레

길가에 핀다고 했다. 파주-장단-개성-의주-신의주까지 이어지는 1번국도는 임진왜란에 쫓겨 선조왕이 의주로 피란 가던 길이다. 피땀한 4월 몽진이었으니까 그때도 길가의 민들레는 왕의 슬픈

행렬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지금 그 길은 DMZ로 가는 길이다. 가다가 막혀있으니까 DMZ밖에 못가는 길이다. 지금도 그 길가엔 첫 돌맞이 우리아기 노랑저고리처럼 샛노란 민들레가 피어있다. 길이 끝났는데도 DMZ를 따라가며 피어있다. 강가에도 들에도 높은 산에도 피어있다. 이른 봄에서 늦가을까지 피었다 지었다 줄기차게 피고 있다.

모두 서양에서 건너온 귀화민들레, 서양민들레들이다.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자가 수정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벌 나비 없어도 어쩌다 꽃 한 송이만 피우면 종족은 한없이 퍼져나간다. 토종민들레는 고집부리다 망했다. 고고한 척 겨우 3~5월 꽃을 피우고 벌 나비 중매를 기다리는 그 순수를 고집하다가 DMZ 민들레 영토를 통째로 넘겨주었다. 눈 씻고 찾아도 이젠 앓은뱅이꽃 우리 민들레는 없다.

서양민들레, 저들이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을 점령해 주인노릇을 하는 걸까? 그때, 지구 반대편 어느 항구였을 것이다. 하늘을 날던 민들레 꽃씨는 동방의 작은 나라 전쟁터로 떠나는 배를 보았다. 거기선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터로 가는 저 어린 병사는 얼마나 두려울까? 포탄 떨어지는 고지마다 내가 노란 꽃을 피워 두려운 마음을 달래줘야지. 민들레 꽃씨는 살며시 병사의 철모 위에 내려앉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병사의 주검 옆에 꽃비석이 되었는지 모른다.

한 여름내 키가 4~5m나 자랄 만큼 너무 늘씬해서 울타리용으로 심고 싶은 어떤 놈도 있다. 빅토리아시대 대영제국의 탐험가들은 코카사스 지방에 자생하는 이름 없는 풀을 들여왔다가 큐 왕립정원을 초토화 시킨 악명 높은 풀, 게걸스럽게 퍼먹고 평평 살만 찌게 못 생긴 돼지 같을 뿐 아니라, 꽃가루나 줄기 속의 진이 심각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초같은 풀. 시멘트 더미에서도 고개를 내밀고, 아스팔트 균열을 뚫고도 몸을 비비고 나오는 지겹게 끈질긴 풀. 돼지풀, 그 풀은 '죽어도 사는 풀'이다.

이 고약한 독초를 DMZ의 군인들은 잘 안다. 쑥처럼 생긴 이파리

몇 개를 단 낫선 풀이 먼저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나 벌거벗은 산비탈을 찾아다니며 잎을 피우고 있었다. 한여름 그 낫선 풀이 훌쩍 자라 키를 넘으면 병사들은 그 풀밭이 두려워졌다. “북쪽의 게릴라들이 저 속에 숨어 들어올지도 몰라. 없애버려!” 그때마다 희끄무레한 색깔의 보잘것없는 꽃을 가득 피웠던 풀밭은 절규하듯 꽃가루를 내뿜었다. 그런 날 밤이면 병사들은 세상에 복수하는 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곤 했다. 풀밭을 용감히 짓밟던 용사들의 옆구리, 팔엔 하나같이 가득 두드러기가 돋은 것이다. “너는 고약한 성미의 풀. 썩도 아닌 것이 썩 처럼 생겨 두드러기를 돋게 하는 네 이름은 두드러기썩!” 돼지풀은 오랜 세월 DMZ일대에서 ‘두드러기썩’으로 살아온 셈이다.

그들은 DMZ를 따라가며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DMZ에 나타난 것일까? 따져볼 것도 없이 그들을 이 땅으로 매개한 것은 6·25전쟁 물자다. 꽃가루를 옮기는 벌 나비처럼 유엔군의 ‘워커’와 중공군의 ‘상하이 농구화’가 그 독초를 매개했을 게 틀림없다. 그들이 전쟁으로, 개발로 파괴된 채 방치된 자연을 찾아다니며 억센 생활력으로 녹색 옷을 입히고 있는지 모른다. DMZ에서는 이미 오래전 자연생태계의 다문화 사회가 정착됐는지 모른다. DMZ에서는 풀 한포기조차 그곳에 존재해야하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

(2) 판문점 널문은 여담이야 한다

널문리는 그 옛날 어느 임금이 널문으로 만든 즉석 널문다리로 강을 건너간 마을이란 유래를 가지고 있다. 6·25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선적리와 개풍군 봉동면 발송리 사이. 1951년 10월 25일 사천강가의 이름 없는 한촌이 세계뉴스의 초점이 됐다. 휴전회담이 널문리에서 개막됐다. 중공군측을 위한 널문리의 중국어 표기가 필요했다. 널문은 한자로 ‘판문(板門)’이다. 마침 널문리엔 담배가게(店)가 있었다. ‘반먼디엔(板門店)’, **판문점**은 6·25전쟁이 만든 신지명이다.



판문점의 유래



6·25전쟁 전에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의 한촌이었으나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시에서 시작된 휴전회담이 10월 25일 이곳의 '널문리'로 옮겨져 진행되면서 중공군측을 위해 널문리의 중국어 표기로 '판문점(板門店)'이라고 명명되었다. 1953년 7월 27일 UN군과 북한·중국군 간에 정전협정이 이곳에서 조인되었고, 그 해 8월부터 9월초까지 쌍방간의 포로교환도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판문점은 남북간 접촉 및 회담의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현재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을 비롯해 우리 측의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북한 측의 '판문각'과 '통일각' 등 10여 채의 건물이 있다.

개성 99칸 한옥 내봉장에서 시작된 휴전회담은 1951년 10월 널문리로 옮겨져 천막회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1952년 7월 포로송환 문제로 회담이 무기연기 됐다가, 이듬해 4월 부상포로 교환 협상을 놓고 재개됐다. 휴회기간 공산군측이 목조건물을 건립했다. 예비회담이 시작된 이후 장장 2년 19일을 소비했다. 1,076회 그 마지막 회합이 그 건물에서 이뤄졌다. 휴전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상(MDL)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발생했다. 1953년 10월 지금 그 자리에 동서 800m, 남북 400m 장방형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 JSA)이 설치됐다.



공동경비구역(JSA)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군사분계선상에 동서 800m, 남북 400m의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 JSA)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측과 북한 측은 쌍방이 35명씩 군인들을 배치, 공동경비업무를 맡아오다가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76.8.18) 후 양측 군인들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 내에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이를 경계로 양측이 각각 분할경비를 맡게 되었다. 2004년 10월 유엔 측의 경비업무는 한국군에 완전 이양되었다.

그 후 60년. JSA는 무수한 뉴스를 쏟아냈다. 그곳의 일상이 그대로 동서냉전사였다. 그 옛날 널문다리 자리엔 사천교란 이름을 단 양회다리가 놓여있었다. 그 위로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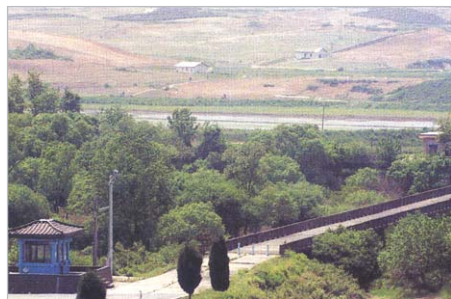
판문점

었다. 그 다리 한가운데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갔다. 그 다리 반쪽은 북한, 나머지 반쪽은 남한이 됐다. 1953년 8월 5일 포로교환이 시작됐다. 8만 2,493명의 공산군 포로가 그 다리를 건너갔다. 유엔군 포로 1만 3,444명은 건너왔다. 일단 다리를 건너면 아무도 되돌아 건너올 수 없었다. 외신은 이 비장한 행렬이 이어지던 그 다리를 'The Bridge of No Return(돌아오지 않는 다리)' 라고 타전하고 있었다.

포로가 아닌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다리' 를 건넜다. 1959년 1월 27일 프라우다 평양 특파원 이동준이 이 다리로 탈출해 왔다. 1969년 3월 22일 귀순한 이수근도 이 다리를 건너왔다. 1968년 12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됐던 푸에블로호 선장 부커 중령과 선원 82명 그리고 유해 1구도 11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를 건너왔다.

미루나무는 미국 버드나무(美柳)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옆에 미국 버드나무 가로수가 서있었다. 산들바람에도 몸을 떠는 그 나무가

자신 때문에 벌어진 '도끼만행 사건' 에 얼마나 몸을 떨었을까. 1976년 8월 18일의 끔찍한 그 사건 이후 북한에서 JSA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던 그 다리는 폐쇄됐다. 그러나 판문점(板門店)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널문, 대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문은 여닫는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폐쇄됐지만 북한이 사천강 상류쪽으로 72시간 만에 놓았다는 ‘72 다리’가 숙명의 남북 가교가 되고 있었다. ‘72 다리’도 남북이 오고 가는 다리가 됐다.

1978년 6월13일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북한 표류어부 8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었다. 버스 한 대가 「자유 의 집」 앞마당에 멈춰 섰다. 신사복 차림에 선물 보따리를 든 북한 어부들이 내렸다. 이들은 인수인계 절차가 끝나자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순간 북한 어부들은 남쪽을 향해 선물 보따리를 풀어 집어 던졌다. 시계, 구두, 양복도 벗어 던졌다. 런닝 셔츠까지 벗어 던졌다. 그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팬티차림에 맨발로 판문각 계단을 올라갔다. 20일 후인 7월 3일 4명의 북한 표류 어부들이 또 북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들도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남쪽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거의 알몸으로 북쪽으로 돌아갔다.

이수근의 탈출극에 고무된 외국인이 많았던 것 같다. 1981년 10월 30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체코군인이 망명했으며, 1984년 11월 23일엔 소련인이, 1989년 8월 29일엔 중국군 좌수개(左修凱) 소령



군사정전위원회 / 중립국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MAC)는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며 정전협정의 모든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유엔군측 대표단 5명과 공산군측 대표단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NNSC)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스웨덴, 스위스(유엔군측 지명) 및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공산군측 지명)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실화 시키기 위해 1991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에 이어 19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을 추방하였다.

부부가 망명했다. 그러나 판문점이 문짝을 열어젖힌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이었을 것이다. 1998년 6월16일 오전10시, 판문점. 정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역사적 장관이었다. 프랑스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은 “20세기 마지막 전위 예술”이라고 말했다.

(3) 잊혀진 전쟁, 잊을 수 없는 전쟁

1951년 4월. 중순이 넘자 임진강변은 진달래가 만발했다. 봄 가뭄에 임진강은 한껏 물이 줄어 있었다. 임진강은 고랑포를 지나 올라오면 어디가 여울목이라고 할 것도 없이 얇은 개천이 돼버렸다. 1951년 4월 21일 밤, 한 무리가 어둠을 헤치며 여울을 건너오고 있었다. 여울목은 1년 전 6월 25일 새벽 북한군 전차가 도하한 호로탄에서 상류로 조금 떨어진 곳이다. 머지않아 그들이 강을 건너 기습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둑의 영국군 매복조는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정적을 깨며 어둠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조명탄 불빛 아래 시체 몇 구가 엮여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몇 명은 되돌아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무리는 간단하게 제압됐다. 이날 밤 사건은 영국군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전설적 ‘임진강 전투’의 서곡이 되었다.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는 서울 가는 나그네가 임진강을 건너 첫 번째 만나는 마을이다. 영



설마리 영국군 전적 기념비

국군 29여단 글로스터셔 대대는 서울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일명 고랑포 축선이다. 중공군이 여울을 건너온지 사흘째 되던 25일 밤, 글로스터셔 대대 750명은 설마

리 235고지에 올라 중공군 3개 사단 2만 7,000명의 공격을 일곱 차례나 받고 있었다.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았다. 대대장 카네 중령은 말했다. “각자 알아서 후퇴하라. 나는 부상자들과 남겠다.” 26일 전투는 끝났다. 50명 전사, 526명은 포로, 그리고 겨우 56명만이 탈출했다. 글로스터셔 대대는 전멸했다. 불운은 글로스터셔 대대에만 다가왔던 게 아니었다. 중공군 4만 2,000명은 임진강변에 진을 치고 있던 영국군 29여단 전체를 동시에 덮쳐버렸다. 병력 수 10대 1의 불균형의 싸움이었다. 1,000여 명의 전사가 발생했다. 참패였다. 그러나 4일간의 끈질긴 저항이 서울을 살렸다.

그 전설적인 전투가 설마리 전적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전투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생존한 참전용사 50여명이 지금도 런던에 있는 선술집 ‘**임진 퍼브(Pub)**’에서 모이고, 일부는 해마다 4월이면 설마리 전적 기념비를 찾는다.

런던 남부 한 주택가엔 ‘**설마리(Solma-ri)**’라는 이름의 집이 있다. 샘 머서(Sam Mercer)라는 설마리 전투 영웅의 집이다. 살아남았지만 한 쪽 눈과 한 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설마리’를 자기집 대문에 붙였다.

2008년 12월, 영국 잉글랜드 남부 글로스터셔 인스워드의 옛 공군 기지가 ‘**임진 막사(Imjin Barracks)**’로 이름이 바뀌었다. 독일에서 철수해 영국으로 이동하는 나토 연합 신속대응군 본부 병력이 주둔할 기지다. 명명식에는 리처드 대넛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그는 “글로스터셔 사람들의 엄청난 자부심이 된 임진강 전투를 기리고 다국적 나토군 주둔지로서의 성격을 살려 임진 막사 기지로 이름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정말 6·25전쟁은 한국인에게 먼저 잊혀진 전쟁인지 모른다. 그러나 6·25 참전국들은 피흘려 싸운 전쟁을 결코 잊지 않는다. 미국은 양평 지평리 전투를 지금도 육군 전투교재로 쓰면서 중공군 인해전술에 근접전투와 백병전으로 맞섰던 경험을 되살린다. 호주 육군사관학교 건물 이름은 ‘**가평**’, 캐나다 유니펙의 부대도 ‘**캠프 가평**’이다.



참전국들의 6·25 기억

참전국	기념물	내용
영국	임진 퍼브 (Pub)	영국군이 10배나 많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임진강 전투'에서 생존한 참전용사 50여명이 런던의 선술집 '임진 퍼브(Pub)'에서 모이고 일부는 해마다 4월이면 설마리 전적기념비를 찾는다.
	설마리 (Solma-ri)	'임진강 전투'가 벌어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서 한 쪽 눈과 한 쪽 다리를 잃은 전투 영웅 샘 머서(Sam Mercer)가 사는 런던 주택가의 집 대문에 붙인 이름
	임진 막사 (Imjin Barracks)	임진강 전투에 참가한 글로스터셔 대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남부 글로스터셔 인스워드의 공군 기지 이름을 '임진 막사(Imjin Barracks)'로 개명
호주	가평	육군사관학교 건물 이름
캐나다	캠프 가평	위니펙의 부대 이름

* 프랑스는 '단장의 능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개성문에서 '단장의 능선 행사'를 개최

이토록 DMZ는 지구촌 어디와도 연결되고 공유하며 공감하는 소재로 네트워크 돼 있는 것이다. 다만 6·25전쟁이 세계 속에 잊혀진 전쟁이 되듯 그 소중한 소재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과거는 잊겠다고 해서 없어질 수 없습니다. 나보다 한국인이거나 한국 정부가 먼저 참전군인들 이야기를 발굴해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임진강 전투 논픽션 ‘마지막 총알(To the Last Round)’이라는 책을 펴낸 영국 저널리스트 앤드루 새먼의 충고가 새삼스럽다.

(4) '신라 마지막 임금'의 고랑포 부활

신라 56대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 임진강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었다. 그가 고려에 귀의할 때 태조 왕건은 망국의 왕을 개경밖에 나와 마중했다. 아마 고랑포였을 것이다. 임진강 상류로 가는 마지막 포구였던 고랑포는 물과 바다의 산물이 모이는 집산지. 고려 초에도 고랑

포의 위상은 대단했을 것이다. 경순왕이 백관을 이끌고 개경으로 가던 그 모습은 30여리에 뻗쳤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두른 듯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대규모 행렬이 임진강을 도하할 수 있는 길목은 고랑포밖에 없다. 그러나 고랑포 나루에 물때가 좋아도, 호로탄 여울이 잦아질 대로 잦아졌어도 왕은 죽은 후조차 임진강을 되돌아 건너지 못했다.



경순왕릉

고려 경종 3년(979년) 태조 왕건의 늙은 사위 김부가 죽었다. 개경의 신라 유민들 사이에 ‘왕이 승하하셨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단순한 신라 왕족의 죽음이 아니다. 그의 죽음은 마지막 신라가 죽은 것이다. 남녘 하늘에 떠있던 마지막 별,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것이다. 개경의 신라 유민들은 패닉에 빠진 것이다. 그때를 ‘계림문헌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경순왕 승하 소식을 듣고 신라 유민들이 장사진을 이뤄 경주로 농지를 잡았다. 유민들 전원이 양식과 침구 일체를 지고 다 따라 나서자 송도가 텅 빌 정도였다”

고려 조정은 경순왕의 유해가 경주로 갈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다. 신라계의 유력한 유민들이 개성을 비우는 것도 문제였다. 유해가 개성을 떠나 장단을 지나 연천 고랑포에 이르렀다. 임진강을 건너면 멀리 경주까지 죽은 왕을 따라 나설 행렬이 1천 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왕실은 긴급군신회의를 소집했다. “왕의 운구는 황성에서 100리를 넘지 못 한다”는 묘책이 나왔다. 100리는 왕이 능행을 할 경우 갑작스런 변란에 대비해 만나질 이내에 왕성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거리로 고대부터 적용되던 왕릉 설치의 규칙이다. 조선시대 역시 이 규칙이 적용되어 왕릉의 경우 도성에서부터 80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왕이 아닌 신라의 왕에게 이 규칙이 적용됐다. 경순왕을 왕의 예로 모신다는 것이다. 그런 구실로 왕의 운구를 고랑포에서 붙들었다. 묘책이 아닐 수 없었다. 고려로서는 경순왕의 운구를 경주까지 보내야 하는 골치 아픈 난제가 해결된 셈이다. 사실은 왕이 아닌 경순왕의 능을 개경에 조성하지 않아도 되었다. 왕의 예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라 유민의 민심을 다독일 수 있었다.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름 붙은 도라산 전설만으로도 왕은 죽어서라도 신라로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를 개경 100여리 밖 고랑포까지 운구한 것만으로도 그의 혼을 달랠 수 있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의 와중엔 능의 존재가 새까맣게 잊혀졌다. 실전된 왕의 무덤을 조선 영조 때 후손이 되살려냈다. 1746년 10월 조선왕조실록이 이에 대한 경순왕의 후손인 김응호의 상소문을 기록하고 있다. “신의 선조인 경순왕의 능묘를 오래전에 잃어버렸으나 지금 장단에서 그 지식 및 신도비가 나왔으니…” 영조는 “경순왕릉이 틀림없다”면서 다시 무덤을 조성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제대로 제례를 지낼 수 없었던 왕의 무덤은 다시 존재를 잃어갔다. 8·15해방과 함께 거긴 38선의 턱밑, 분단현장이다. 6·25전쟁의 소용돌이를 거치고 나자 그곳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돼버렸다. 왕의 무덤은 다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1973년 1월 한 군인 덕에 경순왕릉은 극적으로 부활한다. 육군 25사단 관할 중대장 여길도 대위는 무덤 주위에서 총탄에 맞은 명문비석을 찾아냈다. 바로 ‘신라 경순왕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신라 마지막 임금’은 그렇게 두 번씩이나 사라졌다 부활해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 18-1번지, 철책선에 등을 기댄 어정쩡한 자세로 임진강 고랑포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간간이 왕은 그 옛날 호로탄을 건너 고구려를 향해 말을 몰던 신라군의 함성을 듣고 있을 것이다.

(5) DMZ가 인류의 조상을 낳았다!

그레그 보웬(Greg Bowen). 그는 한국사의 시원을 30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1978년 1월 20일 금요일, 그에게 세계 구석기 역사를 뒤흔들만한 사건이 다가왔다. 경기도 동두천 미 2사단에서 근무하던 그는 지금은 부인이 된 한국인 애인과 함께 한탄강 유원지를 걷고 있었다. 거긴 현무암 강변이다. 그는 고고학을 전공한 군인이었다.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은 돌맹이 3개를 주워들었다.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가 분명했다. 깜짝 놀란 그의 눈에 가로날도끼 2개도 마저 들어왔다.

이 범상치 않은 보물을 확인해 줄 학자가 필요했다. 그는 유물사진을 세계적인 구석기 권위자인 프랑스의 보르드 교수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곧바로 답장이 날아왔다. “만약 이것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면 나는 의심없이 아슐리앙 문화의 석기라고 말하겠다. 직접 현장을 보고 싶은 중요한 발견이다.” (이선복, ‘고고학이야기’)

프랑스의 생 아술 유적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아슐리앙 주먹도끼. 위는 둥글게 다듬고 아래는 뾰족한 날이 서도록 깎으면서 날 옆면은 우둘투둘한 날이 겹겹이 서도록 돌 돌레를 쳐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데 아주 유용한 당시의 첨단 기구였다. 현생 인류의 조상보다 더 오랜 된 고인류들이 쓰던 도구라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 석기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될 뿐 ‘저급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아슐리앙 주먹도끼가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DMZ의 한 미군병사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한국 고고학계가 발각 뒤집혔다. 대학합동발굴단은 4천점의 구석기시대 뎀석기(打製石器), 그것도 아슐리앙 주먹도끼들을 발굴했다. ‘저급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던 가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전국리 유적은 급기야 구석기학의 최고 권위자 존 데즈

먼드 클라크 버틀리대 교수가 전기 구석기에 해당되는 유적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세계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전곡리 유적은 세계 고고학지도에 당당히 등재됐을 뿐 아니라, 미국 고고학 전공서적에도 포함됐다. 보웬의 발견은 세계 고고학계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세계 고고학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놓았다.

철원 DMZ 너머 평강고원 오리산(鴨山, 453m). 경원선 열차가 평강역으로 들어서기 십여 리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낮은 산, 봉긋 솟은 평강고원에 한 줌 흙덩어리처럼 산 같지 않은 산. 그러나 한국사를 탄생시킨 산이다. 백악기라고 하는 먼먼 옛날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한라산, 백두산처럼 용암이 분화구를 통해 뿜어 나오지 않았다. 지각에 벌어진 틈을 따라 점성이 묽은 마그마가 쿨럭쿨럭 흘러나왔다.

오리산이 토해 놓은 용암은 온 천지를 검붉은 ‘핏물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면서 멀리 문산까지 97km나 흘러갔다. ‘핏물의 바다’에 빙하기가 다가왔다. 그리고 얼마 후 간빙하기가 되어 그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평강, 철원, 포천, 연천, 파주까지 무려 직경 150km에 이르는 현무암대지가 생겼다. 추위와 더위에 땅은 오므러들기도 하고 퍼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 현무암 대지의 틈새를 비집고 한탄강이 흐르면서 온갖 조화를 부렸을 것이다. 그 ‘수태극 산태극’ 한탄강이 구비치는 전곡리 현무암 대지 퇴적층에서 오랜 인류의 세월이 숨겨져 있다 밝혀진 것이다. 고인류가 쓰던 아슐리앙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서 한반도 인류사를 까마득히, 세계에서 가장 먼 옛날로 깊이 끌어내렸다.

오리산이 빔어놓은 그 용암대지를 비집고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그 강에 그 옛날 고구



아슐리앙 주먹도끼

려, 신라, 백제의 각축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후삼국시대의 궁예의 태봉국 그리고 고려의 부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리고 그 강이 임란으로 얼룩진 조선시대, 일제강점과 분단 현실마저 속속들이 증언하고 있다. 한탄강, 임진강 단애 위에는 수많은 산성, 돈대·포대 등 전쟁유적, 무엇보다 그 강에 걸쳐있는 DMZ가 치열한 한국사의 물증이다. 그곳은 한국사의 살아있는 교과서다. DMZ는 우리의 상상력을 그렇게 까마득한 고인류 시대까지 인도하고 있었다.

(6) 지뢰는 지능을 갖춘 고등생물

민통선 넘어 임진강에서부터 쫓아온 빨간 역삼각형 ‘지뢰’ 표지판. 그 속에 정말 지뢰가 묻혀있을까?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지뢰밭 숲이 천연덕스럽게 아닌 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그곳을 막연히 온갖 동식물이 맘껏 뛰어노는 자연의 천국이라고 말할 때가 많다.

지뢰는 태생적으로 비겁한 존재다. 덩치 큰 대전차용 지뢰가 세상에 먼저 태어났다. 세계 1차 대전 말기 지뢰는 탱크 잡이 무기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었다. 문제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기껏 물어두면 적군이 파내다 아군 탱크 길목에 묻어 놓는 경우가 잦았다. 대전차 지뢰를 흠치러오는 적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은 지뢰가 필요해졌다. 대인지뢰는 그런 필요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냉혹한 무기다.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는다. 피해자의 80%가 민간인들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 희생자가 20%나 됐다. 지구상에서 162만 7,000마리의 코끼리, 호랑이, 레오 파드, 사슴 등이 지뢰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는 야생동물 보호단체도 있다. 지뢰의 주성분은 플라스틱이나 쇳덩어리와 화약 덩어리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생명체, 그것도 지능을 갖춘 고등생물인 게 틀림없다. 분쟁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는 지구에 기생하는 독충(毒蟲)인 것이다.

지뢰가 생명체라는 것은 우선 그 엄청난 번식력을 들어야 할 것이다. 20세기에 출현했으면서도 그 세기가 가기도 전인 1999년 이미 87개국에 1억 1,000만 발이 매설됐다. 랜드마인 모니터의 보고다. 2억 5,000만 발은 어디선가 분쟁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대기 중인 비축지뢰다. 따라서 지구상의 지뢰는 약 3억 6,000만 발. 지구인 17명당 1발씩의 지뢰를 갖고 있을 만큼 왕성한 번식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지뢰가 걸어 다닌다’는 말이 있다. 백모 여인은 20년 전 7살짜리 아들을 지뢰로 잃었는데 자신도 발목을 잃는 불운이 겹쳤다. 마을 앞 개울에 발을 담그는 순간 지뢰가 터졌다. 밭으로 갈 때 늘 건너던 곳이며, 빨래나 채소를 씻던 곳이다. 주민들은 “지뢰가 걸어 와 그곳에 숨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며 그녀를 위로했다.

지뢰는 정말 여행을 할 수 있다. 1998년 강화도 남쪽 외딴 섬 세어도에서, 2000년 9월과 10월 석모도에서 민간인 세 사람이 지뢰를 밟았다. 100g짜리 폭풍지뢰들이다. 지뢰들이 홍수가 난 강을 따라 DMZ를 벗어나 수백 리 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대교천 등 DMZ의 강에서 해마다 수십 발, 많게는 수백 발의 유실지뢰를 찾아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뢰는 그들이 민통선지역 지뢰 미확인지대에서 마치 자연환경보전에 목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듯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때론 숲을 포기하더라도 지뢰를 제거해야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때 도 인간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지역에서 송전탑 설치 공사 중 불가피하게 지뢰 제거 작업을 벌릴 때다. 약 28억 원의 지뢰 제거 비용이 투입됐다. 그리고 겨



지뢰

우 13발의 지뢰를 수거했다. 지뢰는 인간하게 톡톡히 몸값을 챙긴 셈이다. 정말 지뢰는 생각하는 무기인 것이다.

그 잔혹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놈들이 DMZ 전역에 묻혀있다. 돌틈, 나무뿌리 사이, 갈대밭 속, 가랑잎 밑, 진달래꽃 그늘, 짙레꽃 넝쿨 속, 곰취밭, 큰길가, 오솔길, 두더지굴 옆, 실개천, 모래밭, 심지어 웅달샘 가재 집에까지 외계에서 온 생명체처럼 은신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2. 두 번째 여행 / 궁예가 온 길, 송강이 간 길 철원 ⇒ 김화 ⇒ 화천



궁예가 세달사를 떠나던 해는 서기 891년, 철원에 도읍 하던 해는 896년이다. 가사를 벗어던지고 용포를 입기까지 5년 밖에 소비하지 않았다. 894년 10월 명주를 장악한 그는 군사를 3천 500명으로 불러 태백산맥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이듬해 8월 철원에 입성, 그 이듬

해인 896년 마침내 왕이 된다. 그가 명주를 떠나 어떻게 철원에 이르렀는지를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가 거친 저족(猪足: 인제), 생천(牲川:화천), 부약(夫若:금성)의 고을들을 잇는 옛 길을 따라가면 그는 정확하게 동에서 서로 DMZ를 걸어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898년 송악으로 천도했던 그는 6년 후인 905년 철원으로 환도한다. 천도와 환도의 그 길이 한탄강, 임진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길 위로 DMZ가 흘러간다.

700여 년이 흘렀다. 또 한 사나이가 궁예가 걸어온 길을 역순으로 걸어갔다. 강원도 관찰사 송강(松江) 정철이다. 관동별곡은 그가 원주에서 춘천(소양강)을 거쳐 철원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그 길은 오래전 몽골이 고려를 다섯 번째 침략하던 길이다. 1253년 8월 몽골군은 황해도로 진격하다가 양산성(황해도 안악)을 도륙한다. 돌연 동쪽으로 말을 몰아 동주(철원)를 장악하고, 9월 초순엔 저항하는 춘주성(춘천)을 도성작전으로 무너뜨리고 원주에 이른다.

전쟁은 길을 낸다고 했다. 송강은 그 길로 철원에 이르러 궁예왕이 말을 몰아 개척한 그 길을 따라간다. 동주(철원)에서 회양 그리고 내금강, 외금강을 돌아 울진 망양정까지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울진서 감영 원주로 되돌아간 그 길은 700년 전 궁예가 개척한 길이다. 송강은 궁예가 개척한 전쟁의 길을 관동별곡으로 디자인해 낭만의 길로 채색했다. 이제부터 DMZ여행은 관동별곡의 길이다.

(1) 궁예, 한반도 단전에 궁궐을 세우다

궁예왕이 세운 태봉국의 도성(궁예도성), 그 도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성은 이어도처럼 ‘환상의 섬’, ‘전설의 섬’, ‘피안의 섬’이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궁예궁전의 옛터가 동주(東州, 철원의 옛 지명)의 북쪽 27리 풍천벌에 있으며 지금 그 위성의 둘레는 1만4,421척



공예도성(태봉국 도성)



성의 위치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흥원리이며, 성축 시기는 903~904년경으로 추정된다. 공예는 신라 효공왕 8년(904년)에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고치고 905년에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고암산을 진산으로 정하고 이곳에다 903년부터 궁궐을 건축하고 외성과 내성을 축조하였으며 10여개의 외곽성도 함께 구축하였다. 도성터는 DMZ내에 위치하며 군사분계선이 그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4,370m)이요, 내성의 둘레는 1,905척(577m)인데 절반이나 무너졌으며 궁전의 터가 아직도 완연하게 남아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조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안팎의 성 모두 밑은 돌로 쌓았고, 위는 흙으로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보물 고적조사 자료(강원도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정정하고 있다. 외성은 6,000간 즉, 36,000척(10,908m), 내성은 400간 즉, 2,400척(727m)이나 된다는 것이다. 바깥 성은 토석축성이며 높이 4~12척, 폭 12~16척, 안성은 높이 7척, 폭 12척의 토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2001년 도성의 기록은 다시 정정됐다. 몇 사람 전문가들이 공예도성 답사 기록을 남겼다. 도성은 기록돼 오던 것보다 더 컸다. 그들은 둘레 1.8km의 왕궁성과 7.7km의 내성, 12.5km 외성으로 된 3중성으로 밝혀졌다. 남대문터는 아카시아 군락지가 차지하고 있었다. 남벽은 옛 경원선 철길이 허물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도 높이 1m, 길이 50~60m쯤되는 성터 흔적이 뚜렷했다. 외성 남벽 서쪽 부분에는 길이 20m, 하단 폭 6~7m, 높이 3~4m의 토성이 확인됐고, 내성 남벽의 경우 길이 400~500m 정도의 토성이 연결됐다. 외성동벽은 130m 가량은 말짱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성 모습이 확연했다. 궁궐터, 미륵전터는 찾지 못했다. 궁궐터와 남대문터 어디쯤에 각각 쓰러져있었다는 석등 2개, 2007년 가을 문화재청이 흑백사진으로 공개한 일

제시대 국보 제118호(1940년 7월30일)도 찾지 못했다.

아! 1,100년의 긴긴 세월, 그 큰 성(城)은 거기 있었다. 궁예왕의 대동방국 건설 야망이 깃든 '이상의 섬', 이승의 고난을 다 내려놓으라고 궁예가 설파하던 미륵신앙의 메카, '피안(彼岸)의 섬'. 그래서 이 어도라고 하던 도성이 그렇게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돌레가 30리 쯤 되는 성은 얼마나 큰 성일까. 태조 4년에 쌓은 한양성의 길이가 59,500척, 18.2km이다. 궁예도성이 한양성 만큼 크지는 못하다. 그러나 한성백제의 풍납토성(돌레 3.5km)의 3배, 신라의 경주 월성(1.8km)의 5배, 고구려의 국내성(2,7km)의 4배쯤 되는 크기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궁예도성은 DMZ 속에서 남북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게 들어앉아 있는 게 틀림없다. 군사분계선이 대궐터인 옛 고궐리 한 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가면서 도성을 정확히 남쪽에 반쪽, 북쪽에 반쪽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직사각형 도성의 어느 한 귀퉁이가 DMZ밖으로 비쪽 빠져나오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히다. 군사분계선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런 구도를 빚어냈다. 즉, 정확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던 군사분계선은 궁예도성 앞에서 방향을 남서쪽으로 틀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DMZ도 군사분계선의 방향에 따라 남서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다. 장방형의 도성도 DMZ 속에 들어앉아서 멀리 남서쪽 지평선에 서있는 금학산을 바라보고 있다.



궁예도성 석등

생각하면 할수록 궁예도성과 DMZ의 기하학적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그건 궁예가 세우려던 '대동방국'의 이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통일이상과 그의 통일천하는 너무 일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완충기의 궁예의 나라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독립과

분단에서 통일시대로 넘어가는 완충기로 상징되는 DMZ의 역사적 상황과 너무 흡사한 것이다.

역사는 태봉국이 망하고 고려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던 도참설을 인용해 그 별판의 수도건설은 실패작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 별판에 세운 도성이 18년 단명 왕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대동방국의 이상을 잉태한 태봉국의 수도가 평강고원 오리산(鴨山, 452m) 아래에 건설된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 궁예가 거친 풍천원 별판을 서슴없이 택했다면 그이야 말로 땅의 기운을 읽을 줄 알았던 셈이다. 그는 습곡단층대가 충돌한 땅의 봉합점, 그곳 '배꼽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느꼈을 것이다. 한국사의 시원, 인류사의 시원이라고 할 만한 아슬리양 주먹도끼도 바로 그 배꼽산이 토해놓은 현무암대지에서 발견됐다. 아마도 그는 '배꼽산' 아래 단전(丹田)에 도성 터를 잡았을 것이다.

(2) 철원평야에 묻힌 '전설의 도시'

전쟁으로 무너져 내린 옛 철원은 그 후 반세기 동안 '출입영농'이 지배했다. 폐허는 조금씩 오대미 논으로 변해가고, 흔적이 사라지자 추억도 사라졌다. 철원평야에 한때 3만 7,000명이 살던 그 도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철원은 일제가 작심하고 건설했던 계획 도시였던가 보다. 지뢰밭 속에 묻혀있는 옛 도시의 자국들이 그때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옛 철원의 시가지는 처음부터 2차선 도로로 설계되었던 것 같다.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서있는 두 건물 잔해 사이로 난 군사도로가 최근 2차선 아스팔트로 포장됐다. 마치 새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지은 것처럼 딱 들어맞았다. 건물과 도로 사이가 4m나 5m쯤 떨어진 것이 좀 이상했지만, 인도를 내고 측백나무 울타리 안에 작은 앞마당을 낸다면 그만큼은 필요한 공간이다. 그 도로를 따라가며 철원제일감리교회, 철원군청, 철원경찰서, 철원보통학교, 농산물



사라진 도시 “옛 철원”의 역사

구 분	약 사
공예 시대	궁예가 901년 국호를 마진(911년 태봉으로 개칭)으로 나라를 세우고, 철원을 도읍으로 정하여 18년간 통치하였던 곳이다.
일제 시대	일본은 철원을 계획도시로 건설하였고, 1914년 경원선 철도가 개설되면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철원 평야에 전국 각지의 이주민이 모여들어 1945년 해방 당시 철원읍 인구는 3만 7천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하였다.
공산치하와 6·25전쟁	1945년 광복후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면서 옛 철원은 북한지역으로 넘어갔고, 6·25전쟁 후 우리가 수복하였으나 전쟁으로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다.
옛 철원의 흔적	옛 철원의 관공서, 주요 건물들의 흔적은 민통선내 논밭에서 벽돌과 기와 조각 등으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옛 철원은 사라진 전설의 도시가 되었으며, 현재의 철원읍은 ‘옛 철원’이 아니라 새로 조성된 도시이다.

검사소, 얼음창고, 철원제2금용조합, 철원역이 무너진 채 서있다.

철원제일교회의 대리석 현관 기둥은 밀둥만 남아있다. 중국인 벽돌공이 쌓았다는 벽체는 교회 뒤쪽 한 아름 넓이로 겨우 보존돼 있다. 건축선교사라는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던 보리스의 작품이다. 보리스를 대표하는 한국 내 건축으로 평가받았다는 그 걸작품이다.

한국의 상수도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철원에는 1936년 1일 급수량 1천500톤의 상수도가 건설돼 2천 500명이 수돗물을 먹었다. 울리리의 철원수도국 저수탱크와 정수장은 북한군이 300여명의 양민을 수장시켰다는 슬픈 얘기를 담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

구 철원경찰서의 건축연대는 미상이다. 관전리 언덕 위의 이 집은 일제시대엔 서슬 퍼런 일본인 순사들이 근무했을 것이다. 해방직후 소련군이 북위 38° 이북을 점령했을 때는 그들의 주둔군 사령부였으며, 공산치하에서는 철원군 내무서였다. 그 옆에 60병상을 가진 강원도립철원위원회의 2층 벽돌건물 자리도 남아있다.

왜가리는 명당을 찾아
와 등지를 트는 새로 알
려져 왔다. 군청도 그 고
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 짓는다. 그렇다면
옛 철원군청 자리는 명당
자리가 틀림없다. 수 백
마리 왜가리가 날아와 앉



옛 금용조합

아 지뢰밭 아카시아나무숲을 하얗게 물들이는 왜가리 서식지는 목조
기와집이던 철원군청이 있던 자리다. 공산치하에서도 역시 최고 행정
기관인 철원인민위원회가 들어가 있던 곳이다.

사요리 지뢰밭은 철원보통학교 자리다. 1906년 4월 30일 개교해
해방당시 한 학년에 송(松), 죽(竹), 매(梅), 앵(櫻) 4학급씩 24학급
2,600명이 재학하던 학교다. 공산치하에서도 학교는 계속돼 37, 38,
39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여공이 1,000명이나 됐던 종연방직 철원공
장 자리는 원래 경마 20필이 달리던 경마장이었다. 그 경마장자리에
1932년 제사공장이 들어섰다. 이 공장은 공산치하에서도 평강, 김화,
금성, 화천, 포천, 연천에서 생산된 누에고치를 수집해 가동했다.

농산물검사소는 일본인 관리가 농산물의 품질조사를 하면서 유난
히 한국농민에게 까탈스럽게 굴던 곳이었고, 철원이 북한 땅이었을
때는 찬바람이 뽕뽕 이는 북한검찰청사로 쓰이던 곳이다. 옛 변화가
를 지나 외촌리에 이르면 80명의 역무원이 근무하는 2층 붉은 벽돌
역사와 구름다리, 금강산전기철도회사와 전철차고도 들어앉아 있었
다는 철원역자리이다. 부지만 5만평에 이르던 경원선의 가장 큰 경유
역엔 지금 아무 것도 없다. 녹슨 철길, 엉성한 플랫폼, 어찌면 불이
들어올 것 같은 신호기가 서있지만 모두 관광용으로 재현한 이미테이
션이다.

이 도시 최후의 모습은 어땠을까. 가끔 철원중학교 출신 일본인들
이 사라진 모교를 찾아오곤 한다. 6·25전쟁과 수복, 농지개발 등을

겪지 않은 그들의 옛 철원 잔상은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눈부시게 멋진 도시였다”고 말했다. 그 도시를 전쟁이 아간 것이다.

기록은 철원역이 2차 대전 때 B-29 폭격을 맞고 파괴됐다고 적고 있다. 철원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부터 이미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다. 철원의 노인들은 “철원 시가지가 B-29 조종사들의 폭격 훈련장이 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건 옛 철원이 6·25전쟁으로 마저 부서졌다는 뜻이다. 또 어떤 한 노인은 어느 여름 “폭격 맞은 3층집 철원 제일교회 지붕 밑에서 비를 피했으며, 대리석 벽돌 파우를 뜯어다 집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건 도시가 마지막으로 부서진 것은 전쟁 후였다는 증언이다. 철원 평야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도시가 전설처럼 묻혀있다.

(3) 자본주의 건축 그리고 사회주의 건축

철원군 동송읍 한탄강에는 2개의 다리가 20여미터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걸려있다. 낮은 시멘트 난간의 오래된 다리는 1948년 북한이 착공한 다리인 **승일교**, 오렌지색의 철제 아치형 다리는 1996년 대한민국이 놓은 다리인 **한탄대교**이다. 본의 아니게 ‘자본주의 건축’과 ‘사회주의 건축’의 비교전시장이 돼버렸다.

다리의 품위에서는 오래된 다리인 승일교가 더 눈길을 끈다. 정말



승일교와 한탄대교

그 다리는 깊은 생각 끝에 설계한 다리 같다. 위에서 보면 아주 평범한 시멘트 다리. 철원평야에 거슬리지 않게 평면을 강조한 설계인 것 같다. 그러나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아치형 교각 두 개



승일교 / 한탄대교



구 분	승일교	한탄대교
형 식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아치교 (소련식 유럽공법)	중로식 로제 아치교
준 공	1958년	1999년
길 이	120m	167m
내 용	1948년 북한이 착공하여 6.25 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전쟁 후 한국이 완공하였다.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승'자와 북한 김일성의 '일'자를 합쳐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승일교의 노후화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건설된 교량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교량 형식이 승일교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가 웅장하다 못해 화려하기까지 하다. 간결하지만 단단한 교각처리는 한탄강 급류를 계산한 수리공학적 안목도 돋보인다. 그 교각이 무지개 같은 두 개의 아치를 받치고 있다. 영락없는 커다란 새의 날갯짓이다. 철원평야의 두루미를 상징했는지도 모른다. 70여 년 전 한탄강은 북한의 남쪽 변방이자 38°선에 인접한 최전선이다. 최전선에 그런 다리를 놓으려 한 건설의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다리의 내력을 더듬다 보면 그런 찬사가 좀 어색하다. 다리의 설계는 일본 구주(九州) 공대를 나온 철원 보통기술 중학교 교사 김명여(金明呂)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이름은 '한탄대교'. 따라서 설계는 일본식이다. 2개의 아치 교각 중 1개가 세워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 나머지 1개는 6·25전쟁 중 미군 79공병대대가 세웠다. 그리고 상관을 미송(美松)으로로 깔았다. 그때 다리 공사에 동원됐던 한국인 노무자가 검정색 페인트로 '承日橋'라고 교명을 써 붙였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합작품이라는 뜻이었다. 다리 이름은 남과 북으로 갈린 이데올로기 강에 걸려있는 상징의 다리처럼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 다리 반쪽은 내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고/ 짐승들 째지어 진종일 넘고/ 강물위에서는 네 목욕하고/ 그 아래서는 내고기 잡고/ 물길따라 네 뜨거운 숨결 흐르고/ 조상님네 사랑이야기/ 만주 넓은벌 말 달리던 이야기/ 네 시작하면 내 끝내고 <중략> 철조망도 못 막아/ 지뢰밭도 또 못 막아/ 휴전선 그 반은 내가 허물고/ 나머지 반은 내가 허물고/ 이 다리 반쪽은 내가 놓고/ 나머지 반쪽은 내가 만들듯…」 신경림도 ‘승일교 찬가’에서 그 다리는 남북이 반씩 놓았으며 목이 메어 있었다.

그러나 시구를 새긴 화강암 비석의 앞면은 이같은 승일교 설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하고 있다. 고 박승일(朴昇日) 대령을 추모하는 ‘영웅의 다리’라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한국군 5군단 공병대는 승일교의 목조 상판을 걷어내고 시멘트로 깔아 완성했다. 당시 한탄강에는 한국군이 3개의 다리를 새로 놓거나 고치고 있었다. 군인들은 5군단 출신의 전쟁영웅들의 이름을 이들 다리에 새겨 놓기로 했다. 마침 승일교의 ‘승일’과 이름이 같은 한 연대장 고 박승일(朴昇日) 대령이 있었다. 두 번째 다리도 한 연대장 고 고근홍 대령의 이름을 따다 ‘근홍교’로 명명했다. 세 번째 다리도 역시 전사한 연대장 이름을 따다 붙였다. 고 김영로 중령의 이름을 따다 ‘영로교’로 명명했다.

한탄강에 남과 북이 합작해 건설한 다리가 있다는 설화는 이제 사라진 것이다. 남과 북이 합작하기는커녕 곰곰이 생각하면 그 다리는 일본식 설계에 북한이 착공하고 미군이 교각을 마저 세우고 한국군이 완성한 다국적 다리인 셈이다. 철원 보통기술 중학교 교사 김명여가 설계한 북한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막연히 ‘러시아 공법’이라며 신기해하던 승일교였지만, 사실은 한때 크게 유행하던 건축양식이기 때문이다. 터키 티그리스 강 유역 고대유적지 하산케이프(Hasankeyf)에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다리 유적이 남아있다. 그 고대 다리 뒤편에 승일교와 똑같은 디자인의 다리가 걸려있다. 중국 양쯔강(長江)을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승일교를 꼭 빼어 닮은 다리를 수없이 만나게 된다. 아마 승일교 패션이 한때 지구촌에 유행했던

것 같다. 북한의 젊은 엔지니어가 이들 다리 하나를 급히 복제했을 개연성은 없는 걸까. 티그리스 강을 닮은 다리, 장강을 닮은 다리, 승 일교는 그 다리들의 복제품일지 모른다.

(4) 민들레 별판에 민들레는 피지 않는다

1987년 여름, 철원군지(鐵原郡誌) 편찬위원들은 생동맛게 등장한 ‘민들레 별판’이라는 지명을 놓고 머리를 갸웃거렸다. 모두들 그 별판에 나뉘구는 현무암 덩어리, 천연두 자국보다도 더 박색으로 얽은 송송 구멍 뚫린 구멍돌, ‘곰보돌(variolite)’에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 돌은 고열에 견디다 못해 온 몸에 다닥다닥 발진을 일으키는 천연두를 앓은 아이처럼, 바위는 새까맣게 타다 못해 온몸에 가스가 빠져 나간 구멍으로 박박 얽어 있었다.

한반도를 남남서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양분하고 있는 추가령 열곡대, 그 불안한 협곡에서 그 옛날 화산이 폭발했다. 평강 서남쪽 5km 거리에 솟아있는 오리산(鴨山, 452m), 그리고 경원선 김불량역 부근 해발 680m의 고지였다. 철원과 평강, 이천, 김화, 회양에 엄청난 현무암대지를 만들었다. 철원 북쪽 현무암 대지를 비집고 흐르는 한탄강이 곰보돌을 끊임없이 남쪽으로 굴러 내렸다. 평강, 철원, 김화 땅이 경계를 이루는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맞은 편 한탄강과 남대천이 만나는 별판에 현무암 돌덩어리들이 쌓였다.

넓은 별판에 나뉘구는 그 현무암 덩어리를 철원사람들은 ‘구멍돌’이라고 불렀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으니까. 나중에 ‘구’ 자는 빼고 ‘멍돌’로 고쳐 불렀다. 멍돌로 뒤덮인 별판이니까 ‘멍돌뜰’이 됐을 것이다.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 ‘멍돌뜰’ 들판은 어느 마을에서나 멀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곰보돌 별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별판을 가리킬 때는 ‘먼멍돌뜰’이라고 했을 것이다. ‘구멍돌’에서 ‘구’ 자를 빼고 ‘멍돌’이라고 부르

는 사람들에게 ‘먼명돌뜰’은 너무 길었다. 그래서 ‘먼뜰’, ‘먼들’이 됐다는 것이다.

이 지방의 방언음운은 ‘ㄱ’ ‘ㅋ’를 ‘개’로 발음하는 버릇이 있다.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를 ‘아제씨, 아제씨 우체부 아제씨’라고 불렀다. 낯선 이들이 듣기에는 ‘먼들’도 ‘멘들’로 들렸을 것이다. 미군은 전략상 매우 중요한 이 별판을 지도에 ‘Mendle’로 표기했다. 어떤 이들 귀에는 영어로 옷을 갈아입은 ‘먼들’이 ‘민들레’로 들렸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그걸 ‘민들레’로 읽기도 했을 것이다. 결코 민들레가 피지 않는데도 그 별판은 그런 이유로 ‘민들레 별판’이란 이름을 얻게 됐다.

(5) DMZ에 묻혀있는 박수근 그림 향아리

가장 한국적인 **화가, 박수근**.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갈색과 재색이 주조인 그의 그림은 늘 공간이 어둡다’고 말한다.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수많은 얘기들을 그는 어두운 공간 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것 같다. 그의 그림 공간처럼 그의 생애도 묻어둔 큰 공간이 있다. 그의 예술생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6·25전쟁의 휴전 직후에서 정지해 버린다. 그리고 그가 춘천 약사리고개 일대에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그림을 그리던 1940년 대 초까지 십 수 년 동안은 빈 공간이다.



화가 박수근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으며,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와 서민들의 무던한 마음을 그린 서민화가로 활동하였다. 6·25전쟁이 터지자 먼저 홀로 월남하였고, 뒤이어 부인이 월남하면서 남편의 그림 수습점을 향아리에 담아오다가 DMZ에 묻어두었으나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빨래터’, ‘절구질하는 여인’, ‘길가의 행상들’, ‘아기를 업은 소녀’ 등이 있으며, 가장 서민적이면서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그림의 토양이 되던 젊은 시절 그림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8번이나 선전에 입선했고, 평양도청 서기시절엔 주호회관 동인 그룹을 만들어 평양화단을 주도했다. 그리고 처가집이 있던 강원도 금성에서 살며 크리스천이자 자유사상가인 그가 번민 속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음 직하지만 해방공간과 6·25에 이르는 기간의 그의 그림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는 6·25와 함께 남으로 온 사람이고, 북에 있을 때의 그의 그림세계는 사실상 북쪽에 묻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수근의 자전적 소설 '박수근'이 지난 1992년 간행됐다. 소설가 정현웅이 박수근의 장녀 인숙씨, 친인척,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쓴 글이다. 소설이라기보다는 한 화가의 일생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 실존 인명과 지명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될 만큼 오히려 기록물에 가까운 글이다.

이 소설에 따르면 금성에 살고 있던 박수근은 6·25가 터지자 홀로 남행길을 택해 월남한다. 이어 1952년 10월, 부인은 당시 여덟 살이던 딸 인숙을 걸리고 아들 성남(당시 네 살)을 업고, 박수근의 동생 원근씨 부부와 함께 월남한다. 금성에서 김화까지는 50리 길밖에 안 되었고, 김화일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는 김화였다. 부인은 남편의 그림 수십 점을 종이에 싸고 항아리에 담아 옹기뚜껑을 덮고 진흙으로 밀봉해 원근씨의 등에 지워 걸었다. 금성에서 김화로 가자면 아침리, 하소리, 감봉리를 지나 남대천을 건너야 한

다. 당시 이 일대는 미군과 중공군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였다. 일행은 야산 소나무 밑에 이 그림 항아리를 묻었다. 그리고 남대천을 건너자마자 미군들에게 붙들렸다 는 것이다.



DMZ 속 남대천

부인 김복순은 지난 1979년 작고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찾으러 몇 차례 김화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 부인은 소설 속에서 그 그림이 비무장지대 속에 묻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보물단지가 묻혀있는 위치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우선 그림 향아리를 묻고, 남대천을 건너자마자 미군에 붙잡혔고, 곧 별 2개를 단 미군 장군이 직접 심문을 했으며, 월남을 하면서 중공군들을 보았던 사실들을 자세히 알려주자 “이 피난민 가족을 특별히 배려해 인도하라”고 명령했다는 대목이다. 박수근 부인은 남행길에 수많은 중공군 진지를 목격했으며, 남대천을 건너자마자 잠복 중이던 미군에 붙들려 작전상황실로 안내됐다. 그땐 아직 미군이 중공군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던 때였다. 당시 이 일대는 미 7사단이 주둔해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사단장은 스미스 소장이다. 아마 부인을 심문했던 별 둘짜리 장성은 바로 스미스 소장이었을 것이다.

당신 작전 지도로 재현하면 박수근 부인은 광삼리 앞에서 남대천을 건넜다. 그리고 막 내를 건너기 전에 야산 소나무 밑에 그림 향아리를 묻었으니까 그 야산이 어딘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남아있는 작품은 대부분 금성에서 그렸던 두고 온 작품들을 회상하며 그린 그림들이다. 엄청난 그림 값 때문에 화제가 됐던 ‘빨래터’도 금성에서 그렸던 그림의 ‘재탕’일 가능성이 많다. DMZ 그림 향아리 속에는 그 ‘빨래터’의 오리지널이 담겨있을지도 모른다.

(6) DMZ에서는 철새도 인간이다

겨울철새들에겐 DMZ가 ‘따뜻한 남쪽 나라’다. 거긴 시베리아 아무르강이나 중국 흑룡강에서 날아오는 겨울철새의 첫 기착지이다. 참병은 기러기. 그 가운데도 창백한 긴 다리를 지닌 쇠기러기가 선발대다. 9월말은 아직 철원평야의 추수가 끝나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쇠기러기는 벌써 별판을 기웃거린다. 10월 초순, 드디어 기러기는

본대를 편성해 철원평야를 점령한다. 2000년 가을엔 20만 마리가 날아왔다. 그해 전 세계 기러기의 40%가 철원평야에 날아온 것이다. 쇠기러기는 “끼룩, 끼룩”, 몸길이가 76~86cm나 되는 큰기러기는 “과하한, 과하한”하며 바리톤 울음을 운다. 그 큰기러기도 4,000마리나 된다.

재두루미도 부지런한 철새다. 9월 말이면 어김없이 선발대 50여 마리가 찾아온다. 이어 기러기 떼가 하늘을 뒤덮을 때가 되면 두루미 본대까지 합류해 이 세계적인 희귀조는 철원평야에만 800마리에 이른다. 청둥오리, 가창오리는 철원평야 겨울철새의 후발대. 그러나 10월말이면 이들도 20만 마리가 평야를 뒤덮는다. 그리고 어느새 대머리독수리 떼도 검은 바위처럼 큰 몸집을 웅크리고 앉아 두리번두리번 평야를 바라보고 있다. 두루미, 쇠기러기, 큰기러기, 흰기러기, 가창오리, 호사비오리, 대머리독수리, ‘**철원평야의 새들**’이 이때쯤이면 다 모이는 것이다.

겨울 철새들에게 DMZ는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일까? 그 대지가 아직도 뜨거운 열정을 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일 것이다. 그 옛날 오리산 화산이 만든 대지에는 아직도 영상 15도의 실개천이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다. 그 샘통(泉桶)이 겨울 철새를 부르는 것이다. 샘통은 곡창 철원평야의 젖줄이기도 하다.



철새 도래지 철원

철원은 시베리아, 중국 흑룡강에서 날아오는 세계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로 1973년 천연기념물 제245호로 지정되었다. 이 철새 도래지에는 두루미, 기러기, 청둥오리, 독수리 등 철새들이 시베리아 등에서 내려와 겨울을 나고 있으며, 일본 등의 따뜻한 지방으로 오가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에는 전 세계 기러기(50만 마리)의 40%인 20만 마리가 날아왔다고 한다. 철원평야는 논바닥에 떨어진 낙곡, 벼짚 속에서 월동하는 갯가지 애벌레, 저수지 물고기 등 철새들이 먹이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철새들의 낙원이다.



두루미

강원도 쌀 총생산량의 5분의 1을 쏟아놓고 있다. 콤바인이 지나간 논바닥에는 지천으로 널린 낙곡, 벼 벤 그루터기에서 월동하는 갖가지 애벌레, 논바닥에 자라고 있는 겨울 풀, 얼음장 밑의 물고기…

그것들이 새들을 부르고 있다. 철원평야에는 철새처럼 DMZ를 찾아온 민통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새들을 부르고 있다. 정말 그들은 새가 되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1993년 1월 17일 철원평야에서는 ‘SEOUL KOREA·1993017·KBT’라고 새겨진 말목 가락지로 한껏 멋을 낸 미망두루미가 자신의 고향인 시베리아 양카호를 향해 떠나고 있었다. 이 두루미는 한 달여 전 사망지리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DMZ의 한 병사는 눈 덮인 벌판에서 이상하게 며칠째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두루미 한 마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이레 째 되던 날 아침 두루미는 쓰러져 있었다. 병사가 달려갔을 때 또 한 마리의 두루미가 누워있었다. 쓰러진 두루미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죽은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부인은 이레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지키고 있다가 그녀도 그 자리에 쓰러진 게 틀림없었다.

놀라운 얘기가 마을에 전해졌다. 그리고 극진한 보살핌으로 한 달 만에 기력을 회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슬픈 여인을 자작나무 숲에 둘러싸인 양카호로 날려 보내기로 했다. 기념으로 말목 가락지를 선물했다. 그건 그녀가 다시 철원평야를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아, 그 부인이다”하고 알아차리게 하기위한 표식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를 달리듯, 이 덩치 큰 새도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 두 줄로 섰다. 그 끝에 여인이 섰다.

그 후 철원평야에서 ‘SEOUL KOREA·1993017·KBT’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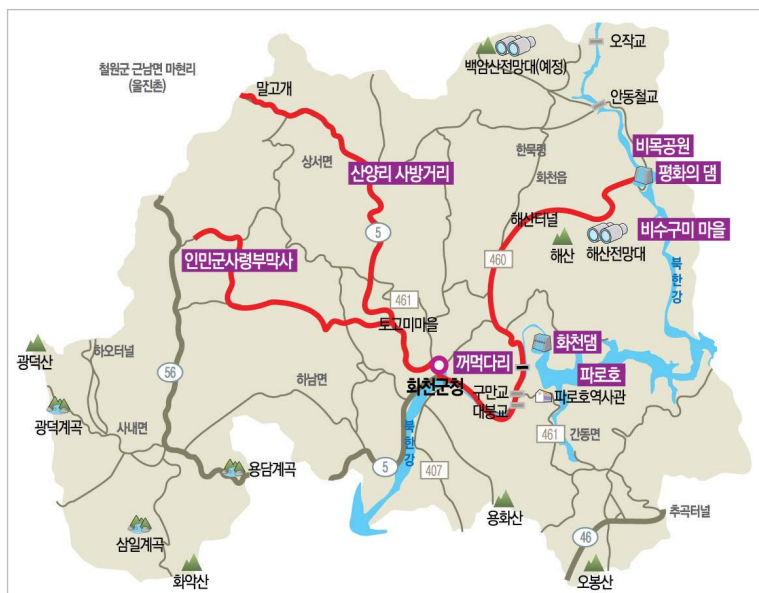
는 사람은 없다. 다만 철원사람들은 그 두루미가 흥부새로 변신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망두루미 사건이 민통선 밖으로 알려지면서 두루미가 사는 양지쪽 맑은 물로 농사를 짓는 민통선 오대쌀이 으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논에 청둥오리를 키워보자고 제안했다. 오리가 해충 잡아먹고, 논김매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기분 좋은 농사였다. 쌀값이 더 올라갔다. 앞은자리에서, 그것도 몇 만원씩 값을 더 받았다. 이듬해는 모내기를 마치자마자 논 떼기로 다 팔려나갔다.

“새가 돈을 물고 왔네. 우리 철새들에게 모이를 줍시다.” 사람들은 겨울 별판에 철새 먹이를 뿌리기 시작했다. 두루미뿐만 아니라, 오리, 기러기 그리고 몽골서 대머리독수리까지 날아왔다. 철새관광을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정말 철원평야에 흥부새들이 날아오고 있었다. DMZ에선 철새도 인간이었다.



3. 세 번째 여행 / 흐르지 않는 강

화천 ⇒ 양구



화천은 강이다. 북한강이 바다처럼 흐르고 있다. 산은 강을 낚는다고 했다. 강원도 금강군 온정령에서 발원하니까 북한강은 금강산이 낚았다. 동금강천, 송거리천, 속사천 등 금강산 14개 골짜기가 쏟아놓은 개천들과 합류해 창도군 대정리에 이를 때까지는 금강천. 여기서 비로소 북한강으로 이름을 바꾼다. 평강군 장바위산에서 발원한 금성천을 옛 김화군 원동면 용현리에서 만나면 곧바로 광주산맥에 걸터앉은 DMZ다.

태백산맥 철령에서 분가해 경기도 광주로 이어진다고 광주산맥이다. 태백산맥의 막내 동생쯤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대성산(1,175m), 화악산(1,468m), 국사봉(1,189m), 명지산(1,250m), 천마산(812m), 북한산(836m), 도봉산(710m) 봉우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만

만치 얇은 산줄기다. 고대 전쟁 이야기, 6·25전쟁 실화들을 소설책 만큼 간직하고 있는 경기 5악인 화악산, 운악산, 감악산, 송악산, 관악산 봉우리들도 이 산줄기 소속이다. 북한강이 그 우람한 산줄기의 살점을 끊어내고 휘감으며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고 있다.

그 산줄기에 동서로 늘어선 DMZ가 마치 늘어뜨린 활의 시위 같다. 시위에 얹힌 북한강이 영락없는 화살이다. 살을 먹일 때 화살은 줌손의 검지 마디 위에 조용히 앉히게 된다. 마치 그 줌손 검지의 마디처럼 광주산맥은 단 한 시도 긴장하지 않을 때가 없었는지 모른다. 북한강 스스로 단 한 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쉼 없는 갈등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화천엔 그 많은 전쟁스토리를 안고 있는 북한강이 바다처럼 흐르고 있다.

(1) 6·25 최초의 전투, 최후의 전투

모진강은 북한강의 옛 이름이다. 일제가 놓은 시멘트 다리 모진교가 지금의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에서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38선 팻말은 다리 북쪽 300m쯤, 말고개 밑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국군 6사단 7연대는 300m를 위하여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북을 포기하고 모진교 남쪽에 초소를 설치했다.

1950년 6월25일 새벽4시, 북한강가엔 폭우가 걷히고 있었다. “폭풍!” 인민군에 외마디 명령이 떨어졌다. 인민군의 122mm포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리고 SU76 자주포가 모진교로 진입했다. 그들은 모진교 건너편에 설치된 38선 팻말을 아무런 저항 없이 짓밟고 일찌감치 모진교 앞에 대기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자주포를 앞세운 것도 개전부터 자신만만함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진강, 즉 북한강은 38°선이 가장 먼저 무너진 비운의 강이다. 그러나 북한강은 6·25전쟁을 마무리한 강이다. 1953년 7월, 북한강 지류 금성천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는 6·25 마지막 전투

가 됐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하했다. 중공군은 모진강에서 6·25전쟁 초전을 치렀던 국군 6사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진강의 7연대는 가장 먼저 압록강변에 태극기를 올린 부대다. 1950년 10월26일 오후 2시15분이었다. 중공군 뒤통에 걸려있었다. 중공군은 6사단의 퇴로를 3중 그물로 차단했다. 그리고 한밤중 전력을 다해 기습적으로 공격해 버렸다.

그들의 공세는 맘먹은 대로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한 때 유엔군과 국군을 뒤쫓아 37° 선까지 남하했다. 홍천강까지 밀려난 전선은 마치 부대자루처럼 삐죽하게 남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6사단은 그 부대자루 끝에서 최후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공군은 자신들이 너무 남쪽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엔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차례다. 부대자루가 가평에서 춘천에 이르는 북한강에서 묶여 버렸다. 중공군은 쫓기고 밀리며 금성까지 밀려가 있었다. 1953년 여름, 이번엔 북쪽으로 비쪽 솟아있는 전선이 형성됐다.

1953년 6월 8일 포로송환협상이 타결되자 휴전회담은 더욱 속도가 붙었다. 중공군은 종전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승전 기념물이 될 만한 대상물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다.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보호국, 우호국 내지는 속국에 대한 지배 지위를 확보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시아 공산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계무대에 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편으로는 국민당군 출신자들을 전선에 앞장세워 청소하는 소득도 있었다.

남은 것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강 유역의 부



금성천

대자루 돌출전선을 주목했다. 한국군 수도·제5·제6·제8·제11사단이 북한강 지류 금성천을 건너 부대자루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뒤쪽으로는 험준한 광주산맥이 미군의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기회가 온 것이다. 중공군 135만 명, 북한군 45만 명은 전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마침 중공군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54군의 주력부대 130사단도 배치돼 있었다. 1953년 7월 13일 밤, 중공군 12개 사단이 동시에 문제의 금성 지역 돌출부를 공격했다. 전투는 휴전당일까지 치러졌다. 그들은 6·25전쟁 중 가장 큰 희생인 6만 6,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대신 한국군 1만 4,000명을 희생시키며 40km정면에서 4km를 전진해 금성천에 전선을 형성했다. 강화도 절반만 한 땅을 빼앗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대미를 승리로 장식했다고 기록했다. 6·25전쟁 마지막 전투도 그렇게 북한강이 치러졌다.

(2) 함재기, 화천댐에 어뢰를 명중시키다

1944년 10월 북한강에 화천댐이 완공됐다. 북한강 계곡에 육지 속의 거대한 바다가 펼쳐졌다. 잘록한 북한강 허리가 시멘트 둑으로 막힌 댐의 모습은 뾰족한 새 부리를 연상케 했다. 호수는 왼쪽으로는 간동면 유촌리로, 오른쪽으로는 화천읍 동촌리로 전개됐다. 마치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깃을 활짝 펴놓는 것 같았다.

북한강에 내려앉은 무지하게 큰 파랑새. 물결이 일렁이자 그 큰 파랑새의 등에도 귀갑(龜甲)이 무늬져 일렁이었다. 파랑새 날개 위로 구만리 하늘이 내려앉았다. 영락없는 봉(鳳)이었다. 아니 바다만 한 새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상상의 새, 봉(鵬)이었다. 인간이 그 상상의 새 '대봉'을 토목공사라는 자연개조 기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강에 대봉을 창조한 것이다. 따라서 거대한 시멘트 둑은 '대봉제(大鵬堤)', 봉(鵬)이 그려진 호수는 '대봉호(大鵬湖)'란 이름으로 태어났다.

일본은 대륙침략을 하기 위한 동력 동원 목적으로 화천댐을 건설했

다. 수탈 목적으로 건설한 댐에 그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그 속내를 증명하는 물증이 발견됐다. 1987년 여름 화천댐 아래 강바닥에서 표지석이 발견됐다. 그러나 대봉제(大鵬堤)가 아니었다. 큰 새는 큰 새인데 대봉보다 작은 새 대명제(大鳴堤)라고 새겨놓았다. 감쪽같은 이름 바뀌치기는 이 댐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8·15 광복과 함께 남북이 분단되자 38°선 이북에 위치한 이 댐은 북한 소유가 됐다. 북한은 일본제국주의가 붙인 이름을 떼어냈다. 화강암 표지석은 그때 댐 아래 까마득한 강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것이다. 북한은 댐 이름을 ‘화천언제’로 개명했다. 대봉호도 ‘화천저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5년 후 6·25전쟁이 발발했다. 화천수력발전소는 남북 쪽 어느 쪽에나 보물덩어리였다. 북쪽으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고, 남쪽으로는 기필코 탈환해야 할 대상이었다. 1951년 5월 홍천강까지 내려왔던 중공군은 패퇴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천수력발전소 일대로 집결했다. 북한강을 따라 진격하던 유엔군은 만수위에 이른 화천저수지가 부담스러웠다. 중공군은 수공(水攻)의 귀재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지난해울 장전호 수문을 열어 미군의 발을 묶었으며, 철원 역곡천을 범람시키며 삼국지 같은 수공작전을 편 경험이 있다. 유엔군은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화천언제의 수문을 열어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해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7함대 항모 프린스턴호에서 어뢰



구멍 뚫린 화천댐

를 실은 함재기 A-1 스카이레이더 4대가 엄호기 편대와 함께 이륙했다. 항공기는 화천저수지 계곡으로 비집고 들어와 호수 위에 어뢰를 떨어뜨렸다. 댐을 향해 달려간 어뢰는 수문 4개를 박살

났다. 이 어뢰공격은 6·25전쟁 최초이자, 유일한 어뢰작전으로 기록됐다.

중공군의 북한강 수공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북한강 계곡에서 62,000명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살됐다. 그 승리의 전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날아왔다. 그는 이들 중공군을 하찮은 ‘오랑캐’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은 중공군을 깨부순 호수를 ‘파로호(破虜湖)’로 명명했다.

1987년 2월,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응하기 위해 화천댐 상류에 평화의 댐이 착공됐다. 화천댐은 새 댐을 짓기 위해 또 한 차례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1988년 9월 17일 개막예정인 올림픽까지는 1년 남짓 남은 때였다. 그때까지 북한 금강산댐이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12억 4,000만t. 일단 금강산댐에서 방류되는 물을 차단하는 마지노선을 화천댐으로 선택했다. 화천댐의 파로호는 10억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그러나 큰항아리에 담긴 12억 4,500만t의 물을 10억t 용량의 작은 항아리에 받아 담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화천댐 수위를 화천수력발전소의 터빈을 돌릴 수 있는 한계수위인 148m까지 낮춰 파로호 저수량을 3억 5,000만t으로 감량키로 했다. 즉, 파로호에 6억 5천만t의 물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5억 9,000만t은 1988년 5월 1단계 공사가 끝나는 평화의 댐에서 가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금강산댐에서 순식간에 물이 방류된다면 정상적인 수문 조작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천댐의 자연방류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화천댐 몸통에 굴을 뚫는 것이다. 수문 30m 아래, 해발 150m 지점에 댐 몸통을 관통하는 직경 5m, 길이 150m짜리 터널 5개를 뚫어 언제라도 수위가 터널 입구까지 올라가면 파로호의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했다.

물길을 막기 위해 댐을 쌓는 것이다. 그 댐에 다시 물길을 내는 이 기상천외한 공법으로 화천댐은 세계 유일한 구멍 뚫린 댐이 돼버렸다. 그 구멍으로 물을 빼내야할 필요가 없어지자 터널 입구에 문을 만들어 닫았다. 화천댐은 몸통에 문 달린 터널이 뚫려있는 댐,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댐이 돼버렸다.

(3) 북한의 '임남 언제', 한국의 '평화의 댐'

구멍 뚫린 화천댐. 그것은 탄흔이다. 북한강 계곡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치른 전쟁의 흔적이다. 사실 1987년 이래 20년 동안 이 계곡에서는 국민의 단 한마디 격려조차 없는 고독하고 치열한 물 전쟁이 치러졌다. 북한에서 먼저 싸움을 걸었다. 1986년 10월, 북한은 DMZ 남방한계선인 북한강 오작교에서 북쪽으로 정확하게 11km 지점, 강원도 창도군 임남리에 임남 언제(堰堤)를 착공했다. 남쪽은 **금강산댐**이라고 불렀다.

그 댐이 들어서는 곳은 조선조 초 강희백(姜希伯)이 “땅이 독 속같이 편벽하여 숨어살기 알맞다”고 지목했던 땅이다. 금강산댐 프로젝트는 북한강에 5개의 댐을 막고, 임진강에 2개의 댐을 막아 두 강의 물을 그 움푹 파인 독 속에 가뒀다가 동해안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그 독 같이 움푹 파인 골짜기 끝에는 인공수로를 의미하는 통구(通溝)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었다. 통구에서 안변청년발전소까지 45km나 되는 장거리 수로터널을 뚫어 북한강, 임진강의 유역을 변경하겠다는 것이 하이라이트다. 댐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국토개조였다.

만일 천재지변으로 그 댐이 붕괴된다면 북한강 하류 서울은 어떻게 될까? 그 보다 홍수기에 수문조작 실수로 일시 방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은 남북관계가 삐걱될 때마다 북한이 대규모 방류 계획을 들고 나오며 협박하는 경우다. 더욱이 한강변의 88서울 올림픽이 목전에 다가와 있었다.

1987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상리 비수구미에 **평화의 댐**이 착공됐다. 대응댐이었다. 금강산댐이 건설되는 창도군 임남리의 임남은 ‘말길



금강산댐



평화의 댐

임(任), 남녘 남(南)으로
 쓴다. ‘북한강이) 남쪽으로
 흘러가도록 막겨두라’
 는 예언인데 북한이 거기
 다 댐을 막아 물줄기를
 돌린다니 잘 못 났다는
 것이다.

1988년 5월, DMZ 남
 쪽 8km 지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상리에 평화의 댐 1차 공사가
 완공됐다. 그러나 금강산댐 공사에 동원됐던 인민군이 돌연 사라졌
 다. 북한은 금강산댐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공연히 남쪽만 바벨탑
 을 세우느라고 온 나라가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금강산댐
 건설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수로 터
 널을 파기 위해 땅굴 속에 들어가 있었다. 1998년 어느 날, 그런 그들
 이 금강산댐 공사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북한강 바닥에서



금강산댐 / 평화의 댐

구 분	금강산댐	평화의 댐
높 이	121.5m	125m
길 이	710m	601m
저수량	26억 2천만톤	26억 3천만톤
공 사	북한이 1986년에 댐 건설을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하였다.	1단계공사 : 1987년~1989년 2단계증축 : 2002년~2005년
위험 및 방지 방법	2002년 위성사진을 통해 금강산 댐 이 큰 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에는 예고없이 대 량의 물이 방류되어 우리지역이 피 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여 1단계 공사를 1989년에 완공하였고, 금강산댐 붕괴에 대비하여 2단계 증축공사를 2005년에 완공하였으며,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건류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 타	북한은 금강산댐을 '임남 언제' 라고 한다.	

개미처럼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보싸옴 놀이에 흥미를 잃은 아래쪽 아이들처럼 남쪽은 판전을 피우고 있었다.

방심과 자위와 자만의 2년, 그 사이 금강산댐이 위용을 드러냈다. 2000년 10월 어느 날, 광주산맥 백암산의 한국군 관측병은 DMZ 너머 북한강에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토목 구조물 뒤편의 색깔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금강산댐은 1단계 공사가 완공됐을 뿐, 아직 공정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댐 뒤편 계곡이 나날이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 미완성 구조물이 어느새 담수를 시작하는 것이다.

2002년 겨울, 북한강이 DMZ를 넘어오자마자 만나는 오작교는 밤새 얼음장이 뒤집히고 오작교가 물속으로 숨바꼭질하다가 급기야 북한강 계곡이 온통 흙탕물의 바다 속에 잠겨버린 처참한 아침을 맞았다. 오작교 용사들이 까마득히 높은 중대막사까지 뛰어 올라갔을 무렵 그들은 겨우내 허영게 얼어붙었던 북한강이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몸부림치는 것을 뒤돌아보았다.

금강산댐이 터지고 있었다. 아니 그 댐이 터질까봐 비상방류를 하고 있었다. 본의든 아니든 그건 수공이었다. 예견했던 대로 우리 머리맡의 금강산댐은 위험한 존재였다. 2002년 9월, 대응댐인 평화의 댐을 45m나 높이는 2단계 증축공사를 착공한 것은 그 흙탕물 사건의 교훈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 드디어 높이 125m, 길이 601m, 저수용량 26억 3,000만t짜리 석괴형 평화의 댐이 태어났다. 금강산댐은 높이 121.5m, 길이 710m, 저수용량 26억 2,000만t. 저수용량에서 평화의 댐이 1,000만t 더 많다. 금강산댐에 가둔 물을 강 그리 받아 담을 그릇이 마련된 셈이다.

(4) 평화대사가 된 수달 ‘한강이’

수달. 몸길이는 63~75cm, 꼬리길이는 41~55cm, 몸무게는 5.8~10kg. 납작한 원형머리, 동글동글한 코, 주름가죽에 덮여 털 속에 묻

혀 있는 작은 눈, 작은 귀... 들여다 볼수록 장난꾸러기 모습이다.

2006년 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한국수달연구센터에 지리산에서 길을 잃은 미아 수달이 자라고 있었다. 부모 잃은 어린 수달이니까 고아일지 모른다. 6개월 후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후 이 수달은 매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대학동물병원에서 18cm쯤 배를 가르고 전자 칩을 넣는다. 그리고 그해 가을 북한강 ‘흐르지 않는 강’에 방사되었다. 바라건대 그는 오작교 교각 밑을 지나고 철책선을 비집고 들어가 남쪽 사람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북쪽 북한강으로 가는 것이다. 이 ‘북파 수달’의 암호는 ‘한강이’, 특수임무는 배터리 수명을 다하는 2년 동안 1초 간격으로 툭, 툭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DMZ 수달 생태연구(DMZ Otter Project : DOP)가 북한강에서 착수된 것이다. 2006년 10월 28일 오후 2시, 북한강 안동포구에서 노란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흙, 스텝, 점프 그리고 풍덩. 한강이는 마치 3단 뛰기 선수처럼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방사의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다. 그러나 북한강에 한 생명을 입주시킨 사건은 오랜 여운을 남겼다. 수달은 하천이라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다. 그 선이 오래전 DMZ로 단절됐다. 한강이가 단절된 그 선을 잇기 위해 방사된 것이다. DMZ의 높고 견고한 철책은 야생동물들의 남북왕래를 오래 전부터 차단했다. 그러나 물속의 작은 틈을 빠져 다니기를 즐기는 수달에게 물속의 철책은 즐거운 정글 놀이기구에 불과할 것이다. 방사된 수달들은 물속을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유일한 동물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수달의 종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혹시 한강이를 북한군이나 과학자가 발견했다면, 그들은 한강이의 복강 속에 정교하게 장착된 비군사적 전자 칩을 발견할 것이다. 전자 칩의 뚜 두 두 소리과 함께 한강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북한 과학자가 통보해 온다면, 그것이 씨앗이 돼 남북한은 북한강에서 수달공동연구의 과제를 들고 머리를 맞대게 될 지 모른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단절시킨 남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냉전의

강이 평화를 잉태하게 될 지 모른다. 점점 더 북쪽으로 멀어지던 한강이의 발신음이 들리지 않게 된다면, 이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그 강은 이념만 단절된 것이 아니다. 정말 강이 단절된 것이다. 그곳에 흐르던 연간 18억t의 물줄기는 오래 전 금강산댐에서 물길을 돌려 동해안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저 골짜기에서 일렁이는 검푸른 물줄기는 화천댐에 가뒀던 물이 역류하고, 금성천이라고 하는 작은 개울이 DMZ 속으로 흘러와 합류해 고여 있는 것이다.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사이 19km의 옛 북한강은 사라진 것이다. 이미 강의 기능을 상실한 그 인공 와디, 하곡, ‘흐르지 않는 강’에 한 생명이 입주한 것이다.

그날 한강이의 방사는 ‘흐르지 않는 강’에 생명을 잉태시킨 것이다. 과장하면 인간은 본의든 타의든 그 강을 ‘불임의 강’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마지 못해 한 생명을 인공수정시킨 것이다. 원래 생명질서란 엄청난 과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인간도 4~5 μ m 크기의 납작한 아몬드처럼 생긴 단세포 정자가 난자를 만나 형성된 존재다. 한강이의 적응여부에 따라 머지않아 ‘한강이 2’가 방사될 예정이다. 마치 납작 아몬드 형상을 한 2개의 정자처럼 ‘흐르지 않는 강’, ‘불임의 강’이라고 과학적 진단을 받은 그 자궁 속에 2마리의 씩씩한 수달이 인공수정 되는 것이다.

북한강 수달 동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8년 10월 10일, 예정대로 제10차 국제수달 총회가 개막됐다. 수달이라는 한 가지 종에 대한 보존과 보호를 논의하는 회의인데도 36개국에서 15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2년 전 ‘흐르지 않는 강’으로



제10차 국제수달총회

간 한강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웬일인지 그 족제비과 동물은 정말 족제비처럼 낯짝 한 번 보여주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종잡을 수 없는 “뚜 뚜 뚜”를 보내다가 갑작같이 사라졌다. 그러나 동물학자들은 어느 대회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한강이 스토리에 감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견의로 그날 한강이는 ‘Peace Ambassador of Korea(평화 대사)’ 작위를 받았다. 한강이를 추억하는 특별한 여행도 마련했다. 페리 물빛누리호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평화의 댐부터는 버스에 나눠 타고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안동철교에 멈췄다. 그리고 한강이가 3단 뛰기 선수처럼 멋진 폼으로 강으로 뛰어든 안동포구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5) 북한강에 내려앉은 막간의 평화

‘평화의 종’이 평화의 댐 종공원에 매달려 있다. 종 머리에서 동서 남북을 향해 앉아 있는 비둘기 4마리 중 1마리의 날개가 꺾여있다. 세계 60여 개 분쟁국에서 보내 온 탄피들과 함께 유리관 속에 보관돼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평화 메시지, 그들이 악수를 청하고 있는 핸드프린팅, 수십 개국에서 보내온 온갖 종들이 전시된 그 공원에서 새삼 아직은 미완성 평화라는 소리가 가슴에 젖어드는 것은 그 꺾인 비둘기 날개 때문일 것이다.



평화의 종 공원

평화의 댐 감상법은 먼저 그 댐이 2단으로 쌓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1단은 1988년 5월 27일 1단계 공사가 완료됐을 때의 높이이다. 그리고 2단은 2006년 6월 15일 2단계 공사가 끝나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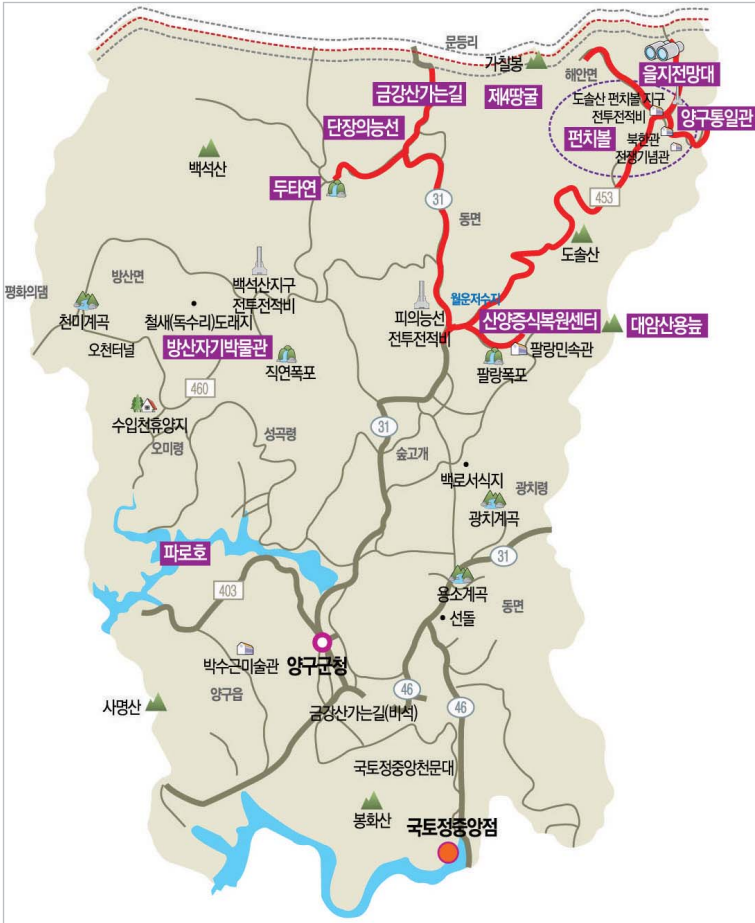
공했을 때의 높이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무려 5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1987년 2월 28일 전두환 정부는 이 댐을 착공했고, 노태우 정부는 1단계공사를 준공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9월 30일 2단계 공사를 착공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그 댐을 북한 금강산댐보다 더 크게 완공해 준공했다.

국제공항 활주로를 비스듬히 세워놓은 것 같은 그 댐의 정교한 2단 벽면은 수공이든 사고든 금강산댐의 물 폭탄을 막아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댐은 당태종이 하북의 반란자 흑달을 칠 때 그의 땅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낱알이 차단해 말려버렸던 건갈 공법을 알기나 하느냐고 묻는지 모른다. 지금 북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활한 전쟁을 평화의 댐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5월31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전화통지문 한 통을 남쪽으로 보내왔다. “장마철을 앞두고 임남 언제의 물을 6월3일부터 뿜는다는 것을 귀측에 알린다. 우리의 사전 통보 조치는 어디까지나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들은 금강산댐에서 북한강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바닥이 허영게 드러난 파로호 사정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물 반, 고기 반’이라던 파로호 고기잡이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우린 북한강에서 ‘기득수리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남북간 새로운 물 분쟁의 시한폭탄이 언제 카운트를 시작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미셀 푸코도 평화와 평화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깐 평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갈등과 갈등 사이 잠시 짧은 평화가 북한강에 놀러와 앉아있는 것인지 모른다.

4. 네 번째 여행 / 국토 정중앙 양구 ⇒ 인제



양구 군량리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10여 농가는 경북 문경 사람들이다. 지구 온난화에 떠밀려 사과 묘목을 들고 양구까지 북상했다. 아직까지는 양구가 사과농사의 북방한계선이다. 식물구계상 양구는 남쪽식물이 북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한계선인 북방한계선이자, 북쪽식

물의 남쪽 마지노선인 남방한계선이다. 당연히 이 접이지대의 자연생태계는 다양하고 풍부할 것이다.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한 지방신문이 우리나라 영토의 정중앙은 어디지를 한 번 실측해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4 극지점은 동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단, 서는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마안도 서단, 남으로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그리고 북으로는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북단이다. 이 4 극지점에서 중앙경선과 중앙위선의 교차점, 우리국토의 정중앙 지점이 실측됐다. 동경 128° 02′ 5″, 북위 38° 03′ 37.5″.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가 정중앙 지점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정중앙 지대는 다이내믹한 기운이 흐를 것이다. 남방과 북방 식물이 섞여 사는 지대니까 산물도 풍부할 것이다. 당연히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6·25전쟁 휴전회담 중 북한은 빼앗긴 편치불과 단장의 능선을 되돌려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생태계의 다양성과 그 땅의 열정적인 기운 때문일까? 양구의 모든 산마다 기막힌 6·25전쟁사를 간직하고 있다.

도솔산전투(1951. 6. 4~6. 20), 대우산 전투(1951. 7. 8~7. 31), 피의 능선 전투(1951. 8. 18~9. 5), 편치불 전투(1951. 8. 31~9. 20), 백석산 전투(1951. 8. 18~10. 28), 가칠봉 전투(1951. 9. 4~10. 14), 단장의 능선 전투(1951. 9. 13~10. 13), 949고지 전투(1951. 11. 17~11.18), 크리스마스고지 전투(1951. 12. 25~12. 28) 등이 엄청난 스토리들을 간직하고 있다. 그곳은 재래식 전쟁의 박물관이다.

(1)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2004년 10월 23일, 국립환경연구원은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던 토종 야생 여우가 DMZ 인근지역에 서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산양의 고장 강원도 양구에는 ‘산양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별난 주민 모임

이 있다. 그해 3월 중순 이들 회원들이 양구군 동면 덕곡리 군부대 인근 야산에서 특이한 모양의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진이 급파됐다. 7~8년생 수컷 여우로 판명됐다.



붉은 여우

여우는 1978년 지리산에서 울무에 걸린 사체로 발견된 후 영원히 종적을 감추었다.

여우는 민담 속에선 언제나 요사하고 교활한 존재다. 아홉 개의 꼬리를 달고 도술을 부리거나, 외로운 산길 나그네를 홀려버리고, 공동묘지를 파내는 괴기스러운 동물이다. 온통 그런 얘기들만 남겨놓고 여우는 오래 전 떠나갔다.

귀 끝과 발끝이 까맣고 꼬리 끝이 하얀 우리 토종, 레드 폭스, 오래 전 우리 곁을 떠난 우리의 붉은여우가 이번에도 26년 전 그때처럼 사체로 돌아왔다. 뚜렷한 상처는 없었다. 울무나 덮에 희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큰 짐승에게 희생되지도 않았다. 그 영리한 짐승이 어설픈 사냥감이 될 리 없다.

다만 입가에 묻어있는 핏자국이 사인을 추정할 수 있었다. 아, 들쥐 따위에 사인이 있었을 것이다. 여우는 DMZ의 옛 전쟁터에서 득실거리는 등줄쥐를 잡아먹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등줄쥐, 담배 2갑 무게인 200g의 작은 쥐. 등에 흰줄이 있는 쥐, 그러나 보통 들쥐, 한국의 대표 쥐다. 그 쥐의 단정치 못한 화장법, 배설법이 문제였다. 등줄쥐는 화장을 좋아한다. 실 새 없이 앞발에 침을 발라 얼굴에 문지르는 불결한 화장을 한다. 잘근잘근 씹은 침 묻은 발로 온 몸을 마사지하기도 한다. 작은 체구여서 이 쥐의 배설량은 정말 '쥐 오줌'이다. 그 적은 양의 오줌을 아무 데나 질금거린다. 그러나 지저분한 화장버릇이나, 방정치 못한 배설이 문제가 아니다. 그 침과 오줌 속에 우글거

리는 유행성출혈열의 병원체, 한탄바이러스가 문제다.

배고픈 여우가 그 등줄쥐 굴을 파헤쳤을까? 여우도 그 열병에 감염돼 피를 흘리며 죽었을까? 아니면, 독극물 먹은 등줄쥐를 삼켰거나, 어느 비겁한 사냥꾼이 뿌려놓은 청산가리를 주어먹은 꿩이나 산토끼를 덫석 물어뜯는 절체절명의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황토 언덕배기에 있는 자신의 황토굴을 향해 눈을 감았을까?

그러나 죽었든 살았든 여우는 이 땅에 분명히 여우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역시 문제는 여우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 감을 자리로 DMZ에 점찍었던 명당터가 온 세상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2) 수입천 두타연의 열목어 전설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에서 물철쭉으로 뒤덮힌 수입천(水入川)을 따라 가면 DMZ 속에 묻힌 문등리(文登里)라는 마을이 있다.

문등리는 그 옛날 문등이촌이었다는 것이다. 차마 ‘문등리’ 라고 할 수 없어 ‘문등리’ 가 됐고, 한창 전쟁 중이었을 때 북한군은 이 마을을 없애 버리기 위해 군사기지로 위장시켜 놓아 자연스럽게 미군의 공습을 받게 했으며, 그 바람에 폐허가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을 무너진 검은 시멘트벽엔 문둥이들이 그려놓은 벽화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입천엔 온 몸에 얼룩무늬를 그리고, 새빨간 눈을 가진 이상한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그 때 그 불쌍한 문둥이들이 물로 뛰어들어 그 물고기로 변했으며, 아직도 슬피 울고 있어 빨강계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 물고기가 살고



두타연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다는 병사들도 많았다. 노란 꽃가루를 날리며 기승을 부리던 ‘두드러기썩’을 제거한 병사들은 예외 없이 두드러기가 돋았다. 수입천에 텀버딩 몸을 담갔으면 좋겠지만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에는 손조차 담가도 안 된다. 북쪽에서 독극 물을 풀어놓을 수도 있을 테니까….

병사들은 살금살금 물가로 다가갔다. 강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커다란, 정말 팔뚝만 한 물고기가 매우 거대한 몸짓으로 천천히 꼬리를 흔들면서 바위 뒤에 은폐하고 있었다. 살며시 손을 뻗어봤다. 한 뼘이나 비켜났을까. 그는 매우 근엄을 떨었다. 이번엔 두 손으로 움켜쥐어보려고 했다. 아, 빨랐다. 그는 썩 몸을 틀어 빠져나갔다. 계임을 포기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놈은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어느새 돌아와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우습게 보는 게 틀림없었다. 돌망을 치고, 옷통을 벗어 덮으며 놈을 잡아냈다. 강바닥에 나자빠진 놈이 쩌려보고 있었다. 빨강게 충혈 된 눈이다. 전설의 물고기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전설은 심심해서 꾸며낸 얘기이고, 도대체 분을 참다못해 빨강게 충혈 된 눈으로 인간을 쩌려보는 물고기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강이 북한에서 흘러오잖아. 북한군에게 세뇌된 빨강이 물고기가 틀림없어. 이제부터 너를 김일성 물고기로 명명한다!”

1983년 여름 두타연에서 민통선학술조사단 담수어팀이 민통선지역의 어류생태조사를 하고 있었다. 투망에 50cm가 넘어 보이는 물고기가 걸려 올라왔다. 황갈색을 바탕색으로 한 이 물고기는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길며, 비늘은 잘랐다. 머리·몸통·등·기름지느러미에는 눈동자보다 작은 자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었다. 이 강줄



열목어

기에 살고있는 문등리 전설의 물고기, ‘김일성 물고기’였다. 물고기 박사 전상린 교수가 놀라운 듯 소리쳤다. “열목어다!”

열목어(熱目魚). 한국에서는 사라져가는 물고기이다. 서식지 자체가 사라지자 1962년 강원도 정선군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73호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를 제74호로 지정했다. 그러나 열목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에서조차 잘 발견되지 않았다. “두타연을 열목어 최다 서식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물고기 박사는 이 숨어 있는 열목어 서식지를 열목어 없는 천연기념물보다 높이 평가했다. 그날 이후 두타연은 열목어 최다 서식지가 됐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일성 물고기’는 비로소 제 이름인 열목어를 되찾았다.

(3) 노병, 죽어서 전장으로 돌아오다

양구 사태리에서 문등리에 이르는 능선, 해발 1,000m의 산줄기가 남북으로 10km나 이어지며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긴 능선. 1951년 9월 13일 연합군은 이 능선을 공격했다. 종군기자 스탠 카터(Stan Carter)는 한 대대 구호소에서 앓던 부상병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 단장(斷腸)의 능선(稜線)은 그렇게 이름을 얻었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험준한 돌산전투였다. 10월 15일 끝내 적의 최후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이 작전은 종료되었다.



단장의 능선 전투

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line)은 양구군에 있는 해발 1,000m의 산줄기가 10km나 이어진 능선으로 당시 전투에서 부상당한 미군 병사가 고통스럽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해”라고 부르짖는 데서 유래하였다. 단장의 능선 전투는 미군 2사단, 프랑스군, 네덜란드군이 중동부 전선의 주 저항선을 강화할 목적으로 북한군 2개 사단을 공격하여 단장의 능선을 점령한 전투를 말한다.

기록적인 전투였다. 헬리콥터작전이 사상 처음 시도됐으며, 22만 9,724발에 달하는 포사격 지원, 항공기출력 842회, 폭탄투하 250톤. 마지막 날에는 국군과 프랑스군이 수류탄과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육탄전으로 최종목표인 851고지와 1,220고지를 점령했다.

미2사단 23연대 피터·퐁포트 중대는 이 전투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며 해질 무렵 목표지점을 점령했다. 그러나 엄청난 탄막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탄환도 모자랐다. 그러나 퐁포트 대위는 피로 점령한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포사격을 요청했다. “그들 주변을 철통같이 엄호하라!” 사단장의 명령으로 밤새도록 그들의 주변으로 포탄의 벽이 형성됐다. 그러나 다른 중대가 고지에 올랐을 때 퐁포트 대위는 탄환하나 없는 기관총 옆에 쓰러져 있었다. 쓰러진 모든 병사들의 탄띠나 소총에는 단 한 발도 남은 탄환이 없었다. 그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마지막 탄환을 발사하고 쓰러진 것이다.

미 2사단 23연대에는 프랑스군 대대가 배속돼 있었다. 프랑스 참전 대대는 한국전에 약 3,400여 명이 참전하여 전사 269명, 부상 1,350명, 포로 12명, 실종 7명이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유독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던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만 260명의 부상자와 60명의 전사자를 냈다. 프랑스는 이 전투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10월 파리 개선문에서 ‘단장의 능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이 제복을 입고 참여하며, 프랑스 군악대의 정식

의전과 행사 후의 참전용사들과의 대화 시간도 소중한 시간들이다.

2007년 9월 22일, 단장의 능선에서는 개선문 ‘단장의 능선 행사’에 참가하던 한 프랑스 노병에 대한 이색 장례식이 열렸다.



프랑스군 참전비

故 모리스 나바르(Maurice Navarre). 그는 중공군의 3차 공세와 1·4후퇴에 이어 4차 공세가 한창이던 1951년 2월에 일등병으로 첫 번째 참전하여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3일간 철의 삼각지대(철원, 김화, 평강)에 대한 유엔군의 대대적인 공세작전에 투입됐다. 그리고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원으로 단장의 능선 전투에 참전했다.

1951년 10월 12일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밤 10시경 그는 야간 공격 중 적의 마지막 저항선 851고지에서 가슴에 유탄 파편을 맞아 부상당했다. 1952년 2월 프랑스로 귀국해 치료를 받은 고인은 1953년 3월 한국전에 다시 참전했다. 휴전을 앞둔 고지쟁탈전이 치열했다. 그는 1953년 10월에 하사로 귀국하기까지 여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수차례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故 나바르씨는 귀국하자마자 1954년 5월 베트남의 승리로 끝난 인도차이나 전쟁에도 참전했다. 그러나 그는 단장의 능선 전투를 잊지 못했다. 2004년 79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유골을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한국의 격전지 931고지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의 장례식은 ‘프랑스 참전 기념비’ 제막행사와 함께 유골을 바람에 날리는 풍장으로 거행됐다. 유골로 돌아온 그는 부인의 가슴에 안겨 단장의 능선에 올랐다. 한 나폴레옹의 후예가 그렇게 단장의 능선에 묻힌 것이다.

(4) 개느삼, 온 세상에 오직 너 하나!

약재 고삼(苦參)은 맛은 쓰고, 효능은 삼(參)만 하다고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뿌리 모양이 보기 싫어 ‘도둑놈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느삼이라고도 한다. 개느삼은 생김새는 느삼만 하지만 효능은 떨어진다고 고삼 아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붙었다. ‘Echinosophora koreensis’. 암호문 같은 개느삼의 학명 속에는 콩과 낙엽활엽관목인 이 식물이 전 세계에서 한국 밖에 자라지 않으며, 발견된 곳도 한국인

한국특산종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1속(屬) 1종(種)의 희귀종이어서 천연기념물 제372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개느삼

개느삼은 1918년 5월 10일 일본인 이시도야가 함남 북청 동정공원에서 발견한 것이 첫 채집기록이다. 이듬해 10월 10일 정태현(鄭台鉉, 1882~1971)과 이시가와에 의해 또 채집됐다. 그리고 1940년 수우(樹友) 이창복(李昌福) 박사가 평남 맹산군 동면 대흥리에서 이 풀을 채집했으며, 25년 후인 1965년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산 기슭에서 다시 이 풀을 찾아냈다. 이 토종 중의 순 토종은 북쪽으로 북청이 분포 한계선이고, 양구가 남쪽 한계선인 것이다. 양구를 자연생태계의 점이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셈이다.

양구의 상징이 된 이 희귀종이 세상에 알려져 천연기념을 대접받게 된 극적인 과정을 이창복 박사는 자신의 ‘이창복 박사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1960년 5월 초 경희대 생물학과 학생한테서 개느삼이 양구에 자생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몇 년 후 이름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학생은 졸업 후 사회로 나갔으며 양구는 그리 좁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양구중학교에 들러 학생들이 수집한 표본을 동정하여 주고, 개느삼을 수집한 학생을 찾아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식물명은 모르면서 식물을 찾아내는 학생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개느삼은 함남 북청에서 발견된 다음 맹산과 양구에서 그 분포가 알려졌습니다. 개느삼이 자라는 곳은 흙이 한 톨도 없는 왕모래 땅입니다. 뿌리를 옆으로 내려 자라면서 균층을 형성하는 힘은 비탈면 사방에 활용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양구읍 한전리에 자라는 것을 천연기념물 제 37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엔고지-양구읍 한전리-동면 입당리’에 이르는 선은 1954년 1차로 수복지구로 편입한 곳이다. 공교롭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마지막 발을 멈춘 개느삼이 이 라인에서 발견됐다. 개느삼 박사도 개느삼이 자라는 곳에는 ‘흙이 한 톨도 없는 왕모래 땅’이라고 했다. 수없이 포탄을 맞았기 때문일까? 개느삼 군락지인 한전리 뒷산은 흙 없는 왕모래 산이었으며, 개느삼은 용케도 그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흘러내리는 모래를 뿌리로 붙들어 감싸고 있었다.

어른의 무릎 높이만 할까? 개느삼은 그렇게 작은 키에 아카시아처럼 생긴 가는 잎을 곧 부러질 것 같은 가는 가지에 매달고 살고 있다. 5월이면 손톱만한 길이의 꽃을 피운다. 혼자 피지 않고 대여섯 송이씩 모여 핀다. 어렵사리 피운 꽃인 만큼 한 번 핀 꽃은 7월까지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다. 5월 메마른 땅에서 황금색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이 꼭 무럭무럭 자라는 수복지구 어린이들처럼 아름답다. 1992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자라지 않는 개느삼을 보호하기 위해 한전리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 양구교육청은 한전초등학교를 개느삼 보호지정학교로 지정했다.

양구에만 있는 줄 알았던 개느삼은 그 후 2001년 6월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됐다. 2008년 6월에는 인제군 남면 부평리 야산 일대에서도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특산종이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자생지가 발견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2010년 5월에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 수목원에서도 이 희귀종이 꽃을 만개했다. ‘멸종위기 2급’ 딱지를 붙이고 있는 이 식물이 태안반도까지 남하한 것은 개느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귀한 풀의 씨앗을 받아다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특산식물 정도가 아니라 미션나무나 금강초롱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개느삼의 가계’ 그 자체가 특산인 이 식물을 잘 못 될세라 아끼는 그 마음도 황금색 그 꽃만큼 아름답다.

(5) 누가 용늪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나?

대암산은 행정구역은 강원도 인제 땅. 식물생태계는 태백산맥 서쪽의 식물구계를 대표하는 표본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암산이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분계 지점이자 생물지리상 중심지역이라는 뜻이다. 그 점에서도 대암산은 '정중앙 양구'와 통한다. 그러나 엄연히 인제 땅이라고 우길만한 가치가 따로 있다. 대암산은 한국자연생태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3년 7월 10일 대암산, 두솔산, 대우산을 잇는 능선과 해안분지 일대 30,743,940㎡를 천연기념물 제246호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대암산 고층습원일대 1.06km²는 1989년 12월 29일 다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1997년 7월 28일 한국이 101번째 나라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할 때는 대암산 용늪을 '람사르 습지'로 신청했다.

대암산은 해발 1,304m의 주봉에서 2km 거리에 또 하나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쌍두봉이다. 두 봉우리 사이는 넓은 평원이다. 그리고 평원 속에 전설처럼 큰 용늪, 작은 용늪인 형제 늪이 들어앉아 있다. 물이끼 이탄층이 쌓이고 쌓여 솟아오르는 고층습원(高層濕原, high moor)이다. 함경북도 대택(大澤), 백두산 장지(醬池)와 오십리



람사르 습지(Ramsar 濕地)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거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 람사르 협약(1971)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총 11개의 늪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초로 '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로 지정된 습지는 대암산 용늪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대암산 용늪, 우포늪, 신안장도, 순천만, 물영아리, 두웅, 무제치늪, 무안갯벌, 매화마름 군락지,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제주도 물장오리 습지 등이다.

지(五十里池)에 이어 3번째, 울산 무제치늪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남한에 단 하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작은 용늪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큰 용늪은 살아 팔팔뛰는 모습이였다. 늪



대암산 용늪

은 길이 297m, 가장폭 225m, 넓이 3.15ha(9,200평)의 달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늪 한 가운데는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늪의 눈’처럼 작은 연못도 있었다. 그러나 연못물은 아무 수서생물도 살 수 없는 지독한 산성수였다. 산성수가 분비나무 두 그루를 늪 속에서 말려 죽이고 있었다. 허영계 양상한 줄기를 남겨놓고 죽어가고 있었다. 늪은 아메바처럼 주변의 나무들을 삼키며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늪이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증거였다.

1987년 여름 어느 날, 정말 큰 용늪의 아름다운 녹색 벨벳이 찢겨져 있었다. 늪 한가운데 길이 30m, 높이 1.5m, 폭 1m 정도의 독이 쌓여있었다. “뭐야, 군인들이 노천 스케이트장을 만든 것 아니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노천 스케이트장. 습원 아래쪽에 독을 막아 물을 채우면, 400m 링크가 나오고 남을 아이스링크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 가장 높은 산정의 스케이트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지나친 상상일뿐더러 DMZ 군인에 대한 모욕이다. 체감온도가 영하 40도나 내려가고, 2m나 눈이 쌓이는 겨울 고지의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그들은 그 산정에서 스케이트를 즐길만큼 한가롭지 않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 좁은 웅덩이에서 스케이트를 지치기 위해 그런 토목공사를 단행할 바보 지휘관은 없다.

오히려 대암산 용늪을 병들게 한 혐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인들을 긴장시키는 냉전에 뒤야 할 지 모른다. 군인들은 늘 북한군의 기

습윤 AN-2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높이야 말로 그 소리 없는 항공기들이 착륙하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이 착륙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모른다. 그 웅덩이를 스케이트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도 공범이다. 용늪이 고층습원으로 밝혀진 이래 그 늪을 가장 많이 밟은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 늪은 '생체실험'을 아마 100번도 더 받았을 것이다.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달려오는 학술조사단은 이 연약한 늪을 유린했다. 늪의 깊이와 나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멍을 뚫으며, 곤충학자들은 습원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수생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는 작은 연못의 물을 뜨기 위해, 식물학자는 습지식물을 찾기 위해 늪을 밟고 다녔다. 뒤늦게 산을 올라 온 조사단은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찾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또 다시 늪을 밟았으며, 더 늦게 온 조사단, 그보다 더 늦게 온 조사단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 늪을 보호해야 한다며 찾아오는 환경단체, 자연의 신비를 벗기겠다고 찾아 온 취재팀, 보호대책을 세우겠다고 현지 시찰을 나온 기관장들도 모두 용늪 스케이트장의 공범들이다.

(6) 편치불은 운석 구덩이

해안분지 가는 길은 터널이 뚫렸다. 국내 최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해안터널이 높고 지루한 돌산령 몸통에 평 뚫렸다. 좁고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가자 전혀 뜻밖의 세상이 나타났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먼 하나가 송두리째 민통선에 들어앉은 해안분지는 아직도 한국의 이색 지대다. 서쪽으로 **가칠봉**(1,242m)·대우산(1,179m)·**도솔산**(1,148m)·대암산(1,304m)의 능선, 동쪽으로 달산령(807.4m) 먼뫼재 산령이 둥그렇게 둘러싸인 분지를 어떤 사람은 감자 모양이라고 했다. 분지 한 가운데의 표고는 해발 410m. 따라서 대암산에서 분지 바닥까지 깊이는 894m나 됐다. 거기다 동서 길이 6.6km, 남북 길



가칠봉 / 도솔산

가칠봉(加七峰)은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의 경계에 위치한 높이 1,242m의 산으로 금강산이 원래 11,993 봉우리였는데 이곳의 일곱 봉우리를 더하여 12,000 봉우리가 되었다고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가칠봉은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바로 남쪽에 있으며, 북한군 동태를 살피기 위한 가칠봉 OP(Observation Post)가 이곳에 있다.

도솔산(兜率山)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높이 1,148m의 산으로 불교 미륵신앙의 도솔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도솔산은 6·25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혔으며, 치열한 전투로 알려진 도솔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해병대가 이 전투를 통해 ‘무적해병’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1.95km나 돼 이 분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구덩이인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마치 ‘어마어마하게 큰 파충류가 파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며 멀리서 보면 마치 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고려 때 지명이 그래서 ‘반화(蟠花)’다. 조선시대에는 ‘해안(海安)’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바다만한 호수였을지도 모른다. 뱀이 들끓어 한 고승의 충고대로 바다 ‘해(海)’를 뱀과 상극인 돼지 ‘해(亥)’로 바꿔 ‘해안(亥安)’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亥)’는 깊은 연못으로도 풀이 된다. 한때 연못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이 이색 지대에서는 뭐든지 나오는 뉴스가 다 다이나믹 했다. 1981년 11월 22일, 한 유력 신문이 ‘6·25 격전지 양구 해안분지 『**펀치볼(Punch Bowl)**』, 세계 최대 운석분지 판명’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펀치볼로 널리 알려진 6·25 격전지인 해안분지(강원도 양구군 해안면)가 1천만 년 전 거대한 별뿔이 떨어져 생긴 세계 최대의 운석 구덩이(隕石盆地)로 밝혀졌다. 강원 양구 동북쪽 20km, 휴전선 바로 남쪽 민통선 안에 자리잡은 이 분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운석 구덩이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미국 애리조나 운석 구덩이(직경 1.2km, 깊이 130m) 보다 7배나 큰 것으로



펀치볼(Punch Bowl)



펀치볼(Punch Bowl)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있는 분지로 6·25전쟁 시 한국 해병대 제1연대와 미 해병대 제1사단이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군 1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지역이다. 외국 중군기자들이 이 마을 지형이 화채 그릇(Punch Bowl)처럼 생겼다 하여 펀치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과학기술원 이병호(李炳昊)박사팀의 「펀치볼은 운석분지」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박사팀은 또 이 지역의 우물물에 많은 양의 철분이 녹아있어 끓이면 별건 색깔로 변하고 개천에는 철분 투성이 검은 모래가 해안분지를 기점으로 펼쳐져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지의 북쪽 가칠봉 산허리에서 조개껍질과 배 조각 등이 발견돼 해안분지가 오래 전에 널따란 호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난 10월 현지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E.J.외피크 박사(미 아르마천문대)의 이론에 따라 해안분지가 직경 188m, 무게 2억 4,700만 톤짜리의 거대한 운석이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하늘로부터 음속의 200배에 달하는 초속 66.5km로 떨어져 직경 8km, 깊이 810m의 운석 구덩이를 형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박사는 운석이 떨어진 햇수는 대략 1,000만 년 전쯤으로 추측했다.

그렇다면 화채 그릇 같은 지금의 모습은 언제 나타난 것일까? 당시 이병호 교수팀은 분지가 호수였을 것으로 전제, 그 안에 빗물이 괴고 증발한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연대를 측정했다. 즉, 중부지방 강우량과 증발량의 차가 1년에 83.2mm이므로 비가 와서 분지에 물이 다 차려면 1,500년. 또 물이 산을 깎는 하천작용에 따라 분지가 가장자리로 빠져나가는 양은 한 해 약 2.3cm,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2만 2,000년이 걸린다. 지명을 해안(亥安)으로 바꾼 조선중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면 물이 완전히 빠진 뒤에야 가능하다. 그때부

터 지금까지도 또 300년이 흘렀다. 따라서 해안분지는 2만 3,800년 전에 생성됐을 것으로 이 교수는 추정했다.

물론 다른 지질학자들은 운석 구덩이 설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편마암과 가운데의 화강암간의 차별적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차별침식 분지라는 것이다. 이때 분지를 깎아 내린 토양이 분지 동쪽에 쌓이면서 댐 역할을 하는 바람에 과거 거대한 연못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때 그 댐의 일부가 먼뎨였으며, 물결은 연못의 수압을 이기지 못해 터져 나간 댐 붕괴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지구는 왜 유독 해안분지를 택해 긴긴 세월 땅을 갈아내 댐을 만들고 물을 받았다가 터뜨리는 일을 했을까? 해안분지 그 이색지대에서 는 거기가 별풍별이 떨어진 구덩이라는 얘기가 더 재미있다.

(7) 그때 DMZ는 산(山) 그림자에 숨어 있었다

DMZ 상공으로 월남하거나, 월북해 불시착한 항공기 사건은 늘 국제문제로 비화됐다.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기가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 한 사건은 미수교국인 한·중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이듬해 12월 11일 바로 그 춘천 미군기지를 이륙한 미군 헬기가 소양강 상류 북한 지역인 강원도 이포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과 직접교류를 학수고대하던 북한측으로서는 스스로 날아들어 온 헬기, 그것은 ‘굴러온 떡’이었다. 북한은 평양과 워싱턴을 직접 잇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데 성공했다.

춘천 미 육군 2사단 항공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는 6·25전쟁 당시 함경도 전투에 참전했던 페이지 중령의 이름을 딴 기지다. 오후 1시 55분, 실제상황을 강조하는 경계경보 사이렌이 어린이날 오후의 평온을 깨버렸다. 이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객기 한 대가 북쪽하늘에 나타났다. 그리고 내리박히듯 캠프 페이지 활주로에 내려

앉았다. 활주로는 제동거리가 모자랐다. 항공기는 서쪽 활주로를 벗어나 가까스로 멈췄다.

승무원과 승객 1백 5명을 태운 중공민항중국 소속 트라이던트 여객기 1대가 선양(瀋陽)을 떠나 상하이(上海)로 가던 중 쥐창런(卓長仁) 등 권총으로 무장한 중공인 6명에게 납치된 것이다. 민항기는 평양 상공을 거쳐 DMZ를 넘어와 한국 공군기의 유도도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했다. 중국 승객과 승무원들은 5박 6일 동안 한국 나들이를 한 뒤 여객기와 함께 중국으로 송환됐다. 납치범 6명은 국내법을 적용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467일 만에 추방형식으로 타이완으로 떠났다.

중국은 미수교국이었던 한국에 고위급 관리인 천투(沈圖) 국무원 민용항공국장장이 이끄는 협상단을 보내 정치적 타결을 모색, 정부간 첫 협상을 성사시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92년 8월 24일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이 체결(1953년 7월)된 지 39년 만에 한·중수교를 맺는 대역사를 이뤄냈다. ‘긴장’의 공간으로 상징되던 미군기지에서 ‘동서 화해’의 역사를 쓴 것이다.

11년 후인 199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2분 바로 그 기지에서 미군 OH-58C 헬기가 통상 훈련 계획대로 이륙했다. 그리고 46분 후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에 불시착했다. 사고 헬기의 불시착 사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한국군 12사단 전방초소로부터 월경사실이 보고된 직후 한·미 양국군의 정보 체계가 가동돼 확인됐다. 북한군의 무선 감청 결과 사고 헬기는 북한군 13사단 23연대본부에 내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전선으로 발진한 U2기는 이날 오전 이포리 인근에서 발견된 나뭇가지로 위장한 이상물체가 사고 헬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즉각 생존 조종사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겠다고며 고위 미국관리를 평양으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판문점을 무시하고 유엔주재 대표부 채널을 이용했다. 미국은 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차관보를 파견

하겠다고 발표했다. 판문점일 줄 알았던 협상테이블은 순식간에 평양-워싱턴으로 격상됐다. 북한은 예기치 않았던 사건으로 '북미 직거래'를 트게 된 것이다. 사건 5일 만인 16일, 겁먹은 표정으로 두 손을 번쩍 든 채 북한군 사진병 앞에 섰던 조종사 보비 W 홀은 부조종사 데이비드 M 헬논의 시신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중국 민항기 사건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맹방 중국이 '대한민국' 호칭을 쓰며 미소를 띠는 것을 보면서 절치부심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필 한중 우호의 길을 트게 된 춘천 미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헬기가 DMZ를 넘어 월북한 것은 정말 굴러온 떡이었다.

중국민항기의 춘천 불시착은 하이재킹이었다. 그러나 미군 헬기의 이포 불시착은 비행실수였다. 두 사람은 보름 여 전인 10월 30일 춘천기지에 배속됐다. 이들의 사고 비행은 배속 후 첫 DMZ 일대 지형 숙지 훈련이었다. 향로봉 북사면 낮선 지형을 숙지하던 그들은 이미 오전 10시 38분 비행금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었다.

동지를 나흘 앞둔 일남중시의 태양고도는 낮아질대로 낮아졌으며 북쪽으로 드리워지는 산(山) 그림자는 길어질대로 길어졌다. 향로봉 북사면은 가팔랐다. 그 골짜기에 처박힌 남방한계선 철책선엔 아직 해가 들지 않았고, 산비탈에 눈을 뒤집어쓴 주황색 비행금지 표지판은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긴 그림자가 그들의 실수를 도왔을 것이다.

5. 다섯 번째 여행 / 모든 길은 금강으로 통한다 인제 ⇒ 고성





DMZ에 잘린 모든 길은 금강산으로 가고 있었다. 철원군 철원읍 일 정리에서 잘린 3번 국도는 평북 초산이 끝자락이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남대천을 건너는 암정교 옆에는 총탄 자국을 뒤집어쓴 도로원 표가 금강산 가는 길을 가리키고 서 있다. 5번국도가 잘린 곳이다. 광

주산맥 너머 주파리는 화천 사방거리에서 주파령을 넘어야 갈 수 있다. 주파리 지뢰밭에 도로 하나가 묻혀있다. 금성을 거쳐 금강산으로 가던 지방도이다. 개화초기 영국의 지리학자 비숍여사는 거룻배로 북한강을 역류해 금강산 가는 길을 개척해 보려 했다. 그러나 지금 평화의 댐쯤에서 되돌아 내려오고 말았다. 그가 수로를 버리고 당나귀에 올라앉아 넘었던 고개가 바로 주파령, 터벅터벅 걸었던 그 먼길길이 바로 금성의 그 지방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구읍 초입엔 ‘금강산 가는 길’이란 글자를 새긴 커다란 바위가 서있다.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면 한전, 도사, 지식리를 만나고 비득고개에서 민통선을 넘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비아리, 그리고 단장의 능선을 넘어 온 철책선이 길을 가로막는다. DMZ 속으로 사라진 그 31번국도는 그 옛날 사태리, 청송을 거쳐 회양군 내금강면 상소신리로 이어졌었다.

인제군 서화면 소양강 상류에도 금강산 가는 길이 숨어있다. 453번 지방도는 돈평 서희구 송노평을 지나 DMZ 속으로 사라진다. 철내동, 노루매기, 태백산맥에서 가장 낮은 고개 삼재령을 넘으면 금강산, 남강 옛 고성군 수동면의 신탄 고미성을 지나면 외금강이다. 6·25전쟁 전까지는 영동과 영서를 잇는 유일한 교통로였다.

7번 국도는 부산에서 함북 온성까지 1,200km나 이어지던 도로다. 잘려있던 DMZ 구간은 지금 복원돼 금강산 육로관광길로 환생했다. 모든 길을 미뤄두고 개척한 길도 있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가는 뱃길이 열렸다. 1998년 6월 16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통일소’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갔다. 그때 그는 고향 강원도 통천군 송전리 금강산 자락 아산마을에 가고 있었다. 모든 이들이 그이처럼 마음으로 금강산을 오가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북으로 가는 모든 길은 금강으로 가고 있나보다.

(1) 백두대간의 빨치산 루트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부근 해안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해안가에 바짝 다가서 있는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좌초된 **북한 잠수함과 공비 침투** 사실을 확인한 시간은 새벽 2시쯤. 일차적으로 공비들의 도주로와 예상 은거지역인 칠성산·망덕봉·괘방산 일대를 차단했다. 오후 3시 45분쯤, 정찰 중이던 군 헬기가 청학산 기슭에서 11구의 사체를 발견했다. 잠수함에 타고 온 안내원과 승조원들이었다. 일행 중 공작조가 그들을 AK소총과 TT권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침투 공비들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제22전대의 공작요원과 안내원, 그리고 승조원들이며 전원 군관들이었다. 이들이 이용한 잠수함은 길이 35m, 폭 3.8m의 300톤 규모의



좌초된 북한 잠수함

상어급 잠수함으로 특수 공작에 이용하기 위해 개조된 것이며, 침투시킨 공작조의 복귀를 위해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좌초됐다.

49일간의 소탕작전으로 1명을 생포하고, 13명



북한 잠수함의 강릉 침투

1996년 9월18일 강릉시 해안가에 북한의 소형 잠수함이 좌초되어 발견되었다. 군경과 예비군이 소탕작전에 돌입하였고, 이후 공작조에 의해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북한군 사체를 발견하였으며, 도주한 북한군을 추적하여 13명을 교전 끝에 사살하였으나 우리 측에서도 군인 및 민간인 등 17명이 피살되는 인명 피해를 입었다. 이후 한·미 양국의 단호한 대응에 따라 북한은 1996년 12월 29일 유감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을 사살했다. 그들 공작조에 의해 살해된 11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사살됐다. 그러나 그들은 도주하면서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관 1명을 희생시켰다.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에서는 송이를 채취하던 주민 3명을 포함해 민간인 4명도 살해했다.

그들은 일정한 루트를 따라 도주하고 있었다. 칠성산으로 도주한 후 발왕산, 계방산, 오대산, 내린천, 소양호 상류, 인제 용대리, 진부령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28년 전 또 한 무리가 같은 루트로 도주하고 있었다.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 사이 북한 민족보위성정찰국 예하 124군부대 소속 120명이 8개조로 나뉘어 경북 울진군 고평해안에 상륙, 울진·삼척·봉화·명주·정선 등지로 침투했다. 대간첩 대책본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하여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에 ‘을중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향토예비군을 출동시켜 소탕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11월 16일까지 3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연말을 기해 작전은 종료됐다.

이들은 1968년 7월부터 3개월간 유격훈련을 받고 10월 30일 오후 원산에서 배로 출발하여 그날로 울진 해안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퇴각할 때는 무전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패하여 독자적으로 육상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그때 시도한 육상복귀 루트가 28년 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다시 한 번 답습된 것이다. 그러나 이 루트는 즉흥적으로 개척된 것이 아니다. 북한군은 1948년 11월부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줄기, 백두대간을 이른바 인민 유격대의 남파 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50년 6·25 남침 직전에는 유격대 60명을 오대산, 계방산으로 침투시켜 아군의 반응을 살피는 동시에 전투 병력의 분산을 유도하고 후방지역 교란을 꾀하다가 아군의 토벌작전으로 55명이 사살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루트의 지형, 지물을 숙지함으로써 6·25 남침에서부터, 후퇴 그리고 무장병력의 침투와 퇴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6·25 남침 당시에는 중공군 제164사단 출신 조선인 1만 명을 기반으로 1949년 8월 나남(羅南)에서 창설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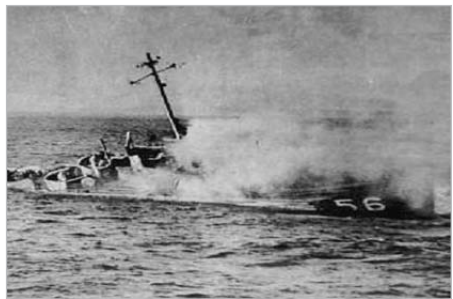
한군 제5사단과, 간성에 주둔한 제766 유격부대와 육전대인 제549 부대가 이 루트를 통해 투입됐었다. 또 지리산 일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빨치산들의 퇴각로도 바로 이 루트였다.

1997년 무장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침투했다가 도주한 그 무시무시한 루트가 관광 상품으로 둔갑했다. 강릉시청 산악회는 삼우봉-괘방산-괘일재-당집-화비령-청학산-임곡리로 내려오는 7.7km 구간을 ‘안보체험 등산로’로 개발했다. 그 코스는 강릉 잠수함 사건의 생생한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이다.

빨치산 출신 작가 이태(李泰)의 ‘남부군’은 철철 피를 흘리는 살점을 떼어다 썼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그의 극한체험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1949년 이래 5년간 1만 717회의 교전에서 피아 2만 명의 생명이 처절하게 죽어간 그 능선과 계곡들. 지리산에 숨죽이고 있던 그 남부군의 무대도 빨치산 루트란 이름으로 상품화 됐다. 현재까지 개발된 코스는 지리산 남·북·동쪽 능선과 계곡 일대의 12개. 함양·산청·하동군 등 경상남도 3개 군의 합작품이다.

(2) 서해에선 어뢰로, 동해에선 해안포로

1967년 1월 19일 오전 1시 50분 쯤 대진, 거진, 속초 등지에서 출어한 60~70척의 어선들이 명태 떼를 쫓아 휴전선(북위 38° 36′ 45″) 쪽으로 무심코 근접하고 있었다. 어로보호 작전 중이던 650톤급 초계함 당포함(PCE 56함)은 스피커를 통해 저지 명령을 내렸다. “북상을 중지하라! 어로 저지선을 넘지 마라! 여기는 56함!” 그러나 명태 떼를 정신없이 쫓던 어선 3척은 이미 어로저지선을 넘어



격침되는 당포함

서고 있었다. 그때 북한 해군의 PBL (Patrol Boat Large) 2척이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아까부터 장전항에서 빠져나와 잠복하고 있었다. 레이더 스크프에 하얀 점으로 나타나 있던 그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56함은 북 경비정과 어선단 사이로 끼어들었다. 피랍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때 수원단의 해안포대가 불을 뿜었다. 수원단(水源端, 고성 앞바다로 비죽하게 튀어나온 말무리반도)은 해금강 가운데에서도 풍광이 매우 좋은 곳이다. 해안절벽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반대편에서 뚫은 터널에 레일을 깔 이동 동굴 포대다. 그 동굴 포대가 공격해오고 있었다.

오후 1시 57분, 첫 번째 포탄이 당포함의 조타실을 강타했다. 이윽고 후부 기관실이 피격 당했다. 당포함은 남은 엔진 하나를 가동하며 남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내 하나 남은 엔진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당포함은 해안포의 고정 타깃이 되고 있었다. 2시 25분 당포함을 예인하기 위해 53함이 접근했을 때 이미 280여 발의 포탄 세례로 만신창이가 된 당포함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5분 뒤 당포함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승조원 79명 중 실종자 28명을 제외한 51명이 구조되었지만, 구조 후 11명이 사망하여 모두 39명의 장병들이 당포함과 운명을 같이했다.

당시 북한은 변변한 함정이 없었다. 그들은 구식함정이나마 미국으로부터 공여 받은 한국 해군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었다. 6·25 개전과 함께 동해에서 맞붙은 해전에서도 북한은 보기 좋게 얻어맞았다. 6·25전쟁 첫 해전은 동해 옥계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묵호항에 정박중이던 YMS 509정은 긴급 출동 지시 전문을 받았다. 북쪽으로 2시간의 항진 끝에 안개 속에서 배 한 척을 발견했다. 발광신호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서서히 접근했을 때 번쩍하는 섬광이 보였다. 적함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37mm포로 응사했다. 적함은 철선이었다. 갑판에는 40mm 2연장 기관포가 있었으며, 마스트에는 붉은 북한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속도도 빨라보

였다. 500야드까지 접근했다. 파도로 선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 37mm 포를 발사했다. 명중이었다. 교전은 50분간 계속됐다. 적함은 연기를 토하면서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첫 해전은 승리였다.

북한군은 6·25 개전과 함께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백두산호(PC 701함)는 해군의 전장병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미국에서 구입한 당시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전투함이다. PC 701함이 600명의 해전대를 태우고 남하하던 북한 수송함을 대한해협에서 격침시켰다. 옥계해전에 이은 또 한 번의 승전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진해항에 정박 중인 701함에 돌연 동해안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오후 8시쯤 오륙도 등대를 돌아 먼 바다로 나왔을 때다. 수평선상에 흑연(黑煙)을 뿜으며 남하하는 괴선박을 발견했다. 오후 9시 30분 발광신호로 정선을 명령했지만 괴선박은 묵묵부답이었다. 100m까지 접근해도 괴선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괴선박은 국기도 선명도 없었다. 뒤쪽 갑판에 증기관총 2정이 보였다. 수병복을 입은 북한 정찰해군과 육전대가 승선해 있는 것이 보였다. 100톤급의 수송함정은 600명 북한군을 태우고 공해로 남하하고 있었다. 영해로 유도해 나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26일 자정을 막 지난 시간, 701함은 3인치 주포로 포격을 개시하였다. 미국에서 도입해 올 때 하와이에서 특별히 장치한 비장의 무기



제1차 연평해전(1999. 6. 15)

다. 적함은 57mm포로 응사했다. 치열한 함포전이 벌어졌다. 12시 26분, 이윽고 적함의 기관실이 폭발하는 금속성 소리가 귀를 찢었다. 밤하늘에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적함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제1·2차 연평해전 / 대청해전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날짜	1999.6.15		2002.6.29		2009.11.10	
내용	북한의 경비정을 포함한 총 10척의 함정이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도발한 데 대하여 우리 해군이 총들과 사격으로 북한 함정을 대파한 해전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서쪽 근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기습공격한 데 대하여 우리 해군이 응징하여 북한 함정을 퇴각시킨 해전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동쪽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데 대하여 우리 해군이 북한 함정을 격퇴시킨 해전	
피해 상황	이군	북한군	이군	북한군	이군	북한군
	· 고속정 4척, 초계함 1척 일부 파손 · 9명 경상	· 어뢰정 1척 침몰 · 대형 경비정 대파 · 중형 경비정 2척 반파 · 소형 경비정 2척 파손 · 최소 30여명 사망, 70여명 부상	· 참수리 고속정 357호 침몰 · 6명 전사 · 19명 부상	· 등산곶 684호 반파 · 30여명 이상 사망 또는 부상	· 함선 외부 격벽 15발 탄흔	· 함선 반파(다른 함정으로 예인) · 퇴각 · 여러 명 사망 또는 부상

※ 출처 : 대한민국 해군 - www.navy.mil.kr

북한은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서해상에서 벌어진 제1·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 후인 2009년 11월 10일의 대청해전에서 모두 패퇴했다. 마치 그때를 만회하려는 듯 2010년 3월 22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뢰 공격으로 한국형 초계함 1,200톤급 천안함을 침몰시키며 똑같은 46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켰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산 29번지 ‘당



피격된 천안함

포함 전물장병 충혼탑'에서는 우리의 잊을 수 없는 동서해 해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

(3) 바다가 삼킨 해상테러 일지

박상우의 '말무리 반도', 그 소설 속의 여자는 "모든 산은 바다로 뺏어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정말 그 말처럼 금강산은 바다에 가라앉으면서도 자신의 자태를 말무리 반도에 해금강산이란 이름으로 남겨놓았는지 모른다. 산이 마지막 가라앉기 위해 불쑥 솟아 숨을 몰아쉬던 곳, 그 산의 끝이 수원단이다. 거긴 등대가 있어 항로의 지표가 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거긴 당포함을 침몰시켰던 동굴해안포대가 숨어있는 곳이다. 그리고 시커먼 바위 그늘 속에는 늘 명태 떼를 쫓는 우리 어선을 끌고 가려는 패트롤 선(船)이 숨어있던 곳이다.

해무는 북한해군의 고속 경비정들에게 좋은 은폐물이다. 수원단에 해무가 내려앉으면 장전항을 살며시 빠져나온 북한의 고속 경비정 일명 '스강구'가 수원단 부근을 배회했다. 북한 경비정은 새까만 색깔을 칠해 위장하고 명태잡이에 정신을 잃은 남쪽 어선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기다리는 이리처럼, 선단에서 떨어진 통통배가 먹이였다. 그들은 쏘살같이 달려와 퇴로를 차단하고 낙엽처럼 떨고 있는 작은 어선들을 예인해 갔다. 기관총으로 위협해 끌고 갔으며, 어떤 때는 갈고리로 찍어 끌고 가기도 했다.

바다엔 고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어장을 잃은 어부들은 한 발짝이라도 더 북상해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그들을 붙들어서 '의거 월북', '영해침범 간첩선' 등 어떤 누명을 씌워도 그럴 듯 했으며, 남쪽은 대책도 없었다. 푸른 풀밭을 보고, 경계를 넘지 않을 양떼는 없다. 이를 막는 방법은 높은 담장을 치는 것이다. 동해의 **어로운계선**은 그렇게 그어졌다. 1964년 6월 16일 농림부 예규 제32호로 북위 38° 35' 45"



어로한계선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의 접적해역(接敵海역)에 정한 어업규제선을 말한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어선이 불법으로 북한해역을 왕래하는 사례가 잦아 국방부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24일 농림부가 농림부령으로 북위 38° 35' 45"에 어로저지선(漁撈沮止線)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5일 수산청 훈령으로 어로저지선을 38° 34' 45"로 조정하고 명칭도 어로한계선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 1월부터는 어로한계선을 어로허용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동해의 어로 수역을 38° 33'에서 38° 34'으로 확대하였다.

에 처음 어로저지선이 설정됐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폭 1마일 정도의 완충 해역이 형성됐다.

그러나 완충해역이 너무 좁았다. 당포함은 이 완충해역에서 어선들의 월선을 저지하다가 피격됐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어로저지선은 남하 조정됐다. 그해 12월 5일 수산청 훈령으로 어로저지선을 2마일 남쪽 38° 34' 45"로 조정했다. 또 1969년 3월 10일 해양경찰대의 건의에 따라 동해에서는 5마일 남쪽으로 이동시켜 북위 38° 33'으로 조정하였다. 명칭도 어로한계선으로 바뀌었다. 1994년 1월부터는 '어로한계선'을 '어로허용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동해의 어로수역을 38° 33'에서 38° 34'으로 확대했다.

첫 사건은 1957년 11월 9일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서 일어났다. 수원단에 숨어 있던 북한의 검정색 '스강구'가 명태잡이 배들을 덮쳤다. 동력만으로는 힘이 팔려 뚫도 함께 단 느낌보 어선 8척이 47명의 어부들을 실은 채 낚시 바늘에 꿰인 명태처럼 북으로 끌려갔다. 이 사건이 시초였다.

그리고 2000년 8월 29일 오전 11시 40분 경 속초 선적 9.77t급 채낚기 어선 송창호가 강원도 거진 인근 해역에서 항해장비 고장에 따른 항로 착오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경비정에 나포됐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 경 장전항을 출발, 속초항으로 되돌아왔다. 해양수산

부는 북측에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귀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은 동해상에서 북한해군에 의한 우리어선이 나포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돛 달린 명태잡이 8척에서 송창호가 나포되기까지 43년 동안 바다의 민통선 어로한계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랍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러나 그 냉전일지는 바다가 삼켜 버리고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2000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납북어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3,790명이며 이중 487명이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된 상태이며, 납북자 유형별로는 어부가 3,6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동해에서 피랍된 어선은 얼마나 될까? 한 기록은 1963년 11월 12일 해광호가 피랍된 사건을 기점으로 모두 128척, 어부 1,147명이 피랍됐으며, 이 가운데 11척 131명의 어부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4) 해금강에서 해금강 길을 묻다

해금강은 어디일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금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고성군 동해 기슭의 수원단에서 옥교암에 이르는 4km의 해안 절경을 이르는 말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또 삼일포에서 동해로 약 4km 되는 곳에 자리한 고성군 해금강리 앞 수원단으로부터 남쪽으로 해만물상, 입석, 칠성바위를 거쳐서 남강 하구의 대봉섬에 이르는 남북 6km, 동서 2km 내 좁은 범위의 명승지를 말하기도 한다.

해금강 구역의 기암들은 변성암 지역으로 이루어



수원단 해만물상

어져 있으며, 이들 암석들이 파식(波蝕)을 받아 독특한 모양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수원단의 남쪽 바다에 솟은 만물의 형상을 가진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일러 ‘해만물상(海萬物相)’이라 하는데 쥐바위, 고양이 바위, 사자바위, 잉어바위, 지렁이바위, 얼굴바위, 부부바위, 동자바위, 노승바위, 서적바위, 누룩바위, 나한바위, 천황바위 등으로 불리는 기암괴석들이 있다. 이 가운데 촛대바위와 두 개의 바위기둥이 마주서서 마치 대문처럼 열려진 듯 보이는 금강문과 해금강 입석의 경치가 가장 유명하다는 것이다. ‘검은 해적선 스카우’가 숨어있던 수원단엔 정말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해도 좋을 선경진경도 숨어있는 것이다.

어떤 책에는 해만물상의 수원단일대만 해금강이라고 부르기는 아쉽다는 듯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풀이하지 않는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지역. 태백산맥의 산줄기가 바다까지 드리운 경승지로 송도(松島), 불암(佛巖), 대봉(大峯), 선암(船巖), 작도(雀島), 해만물상(海萬物相)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해금강은 그 보다도 더 넓다. 넓은 의미의 해금강은 외금강의 동쪽 해안 일대, 즉 삼일포와 남강 하류에서 더 남쪽으로 영랑호(永郎湖), 감호, 화진포(花津浦)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금란굴과 총석정 일대까지도 포함하는 남북 약 30km 구간을 말한다. 우린 화진포에서도 해금강 선경진경을 다 만나보는 것이다.

해금강이 좋기로는 삼일포, 영랑호, 감호, 화진포, 그 석호들이 간직한 8,000년 해안사(海岸史)를 듣는 것이다. 석호(潟湖, Lagoon)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모래톱을 형성해 만들어진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자연 호수다. 석호에는 맑은 개울이 흘러들어오고, 반대로 동해바다가 모래톱을 훌렁 타넘어 유입되기도 한다. 거긴 담수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또 다른 생태계의 접이지대다. 어류 낙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새의 유토피아다. 생성 연대가 8,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석호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보전 가치가 충분하다.

화진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가장 북쪽의 석호다. 화진포를 시작으

로 강릉시 풍호까지 동해안에는 18개의 석호가 남아있다. 그 소중한 자산이 후대에 석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인위적으로 훼손돼 가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발굴도 하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풍호는 골프장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잃은 쌍호는 늪으로 변했다. 경포호는 1930년대에 비해 면적이 50% 이상 감소했고, 염개호와 순개호는 어망 따위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다시피 했으며, 순포개호는 쓰레기 처리장과 별 다른없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다. 또 가평리습지는 매립된 지 오래됐으며, 봉포호는 한 대학의 정원용이 됐으며, 광포호, 천진호, 청초호는 최악의 부영양화 호수로, 선유담은 조사도 되기 전에 내륙화 현상으로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겨우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영랑호, 매향호, 향호, 경포호 등 7개 석호에 대한 가치 발굴 계획이 시작됐고, 나머지 11곳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름이 지워졌다. 잘 보존된 석호는 어디 없을까.



금강산 검호

금강산 구선봉 앞 DMZ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나무꾼과 선녀의 검호(鑑湖)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검호의 둘레는 3km 정도이지만 호수가 거의 원형으로 되어 있어 영랑호보다 오히려 더 넓다. 큰 호수치고는 물이 깊지 않아 얇은 곳은 무릎을 걷고 건너갈 수 있다. 호수 동쪽으로 약 300m 되는 사주(砂洲)가 있고, 이 사주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인접해 있다. 근처에는 차풍정터, 해금강 일부인 송도·선암 등이 있다. 조선 중엽의 명필 양사언이 경치가 좋아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비래정(飛來亭) 터가 전설과 함께 전해오고 있다. 우린 늘 해금강에서 해금강이 어디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5) 권력자마저 추억으로 만나는 화진포

옛날 바닷가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관리들이 누이를 배에 태워 궁녀로 데리고 가버린 후 혼자 남은 동생이 죽어 해당화 꽃으로 피어났다는…。 해당화 군락지가 있어서 기념물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 화진리(花津里)는 그 꽃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해금강 남쪽 절경 화진포도 해당화 피고 지는 호수여서 화진포(花津浦)가 됐다.

밟으면 우는 백사장이 있다. ‘택리지’를 쓴 이증환은 이를 ‘명사(鳴沙)’라고 불렀다. 명사 별판에 만개한 붉은 해당화는 얼마나 넋을 빼앗아갈까? 그 옛날 고성군수 택당 이식은 청사에 화진8경을 써 붙이면서 평사해당(平沙海棠)을 앞에 뒀다. 월안풍림(月雁楓林), 차동취연(次洞炊煙), 장평낙안(長平落雁), 금구농파(金龜弄波), 무운종성(茅雲鐘聲), 모화정각(茅花亭閣), 풍암귀범(楓岩歸帆). 어느 것 하나 뒤질 데 없지만 그래도 화진포의 으뜸은 ‘우는 모래 펼쳐진 백사장에 핀 해당화’라는 것이다.

‘우는 모래 백사장’ 건너 편 작은 섬이 금구도(金龜島)다. 그 거북섬이 광개토대왕릉이란 주장이 제기돼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하고 고구려 연대기에 광개토대왕 3년(서기394년) 8월경 화진포의 거북섬에 왕릉(壽陵) 축조를 시작했으며, 광개토대왕 18년 8월에 화진포의 수릉축조 현장을 대왕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서거한 이듬해인 장수왕 2년(서기414년) 9월 29일 화진포 거북섬에 광개토대왕의 시신을 안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곳에 광개토대왕릉 수비대가 왕릉을 지키고 있었고, 계림(신라)의 군사와 수비대의 잦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문자명왕 2년에 이곳에서 광개토대왕의 망제(望祭)를 지냈다는 기록도 발견됐다.

화진포 거북섬의 광개토대왕릉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주몽의 건국기와 광개토대왕비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은 거북이의 도움으로 큰 강을 건너 고구려 건국의 동력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거북이는 일종의 고구려 수호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부왕인 미천왕의 시신을 전연(前燕)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와 백천과 신계에 왕릉을 구축하고 그 곳에 부왕의 시신을 다시 모시고 자신의 수릉도 만들게 되면서 반도 내에서 왕릉길지를 찾고 보호하는 것이 고구려 왕의 중요한 역사(役事)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일성 별장’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화진포의 성(花津浦의 城)’이 지닌 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김동열, 1984)’에 따르면 김일성 별장은 국내 결핵사업 선구자인 셔우드 홀 박사(Dr. Sherwood Hall)의 별장지로 건립됐다. 1937년 일제가 원산 외국인 선교사 집단거주 지역을 고성 화진포로 강제 이주시킬 때 홀 박사는 휴양지 이전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화진포 일대에 선교사촌락을 조성하면서 현재 화진포의 성 위치에 자신의 별장을 짓고 ‘The Castle at Wha Chin Po(화진포의 성)’이라고 이름 지었다. 3년 뒤인 1940년 일제는 외국인 선교사를 모두 추방했다.

광복 이후는 소련 군정치하의 ‘정양소(귀빈관)’로 이용됐다. 1948년 8월 당시 6세이던 북한 김정일이 소련군 정치사령관 레베제프 소장의 아들과 별장 입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 ‘김일성 별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자유당 시대의 2인자 이기붕 별장은 이 호탕한 건물 아래 소나무 숲에 앉아있다. 아담한 이 건물은 1920년대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집이다. 해방 후에는 김일성 별장과 함께 북한공산당 간부 휴양소로 사용되었으며, 휴전 후에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의 처 박마리아가 개인별장으로 사용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은 1945년 신축했다는 설과 1954년에 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1961년부터 방치돼 철거된 것을 1999년 7월 육군에서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별장을 다녀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승만 부부가 사용한 침대·납시 도구 등이 전시돼 있다. 아름답리 벚나무 그늘 길이 끝나는 갈대숲에

그가 낚시를 즐겼다는 자리라며 좌대 한 채가 놓여있다. 별 좋은 호수 가에서 노(老)대통령 대신 커다란 나무의자가 즐고 있다.

(6) 남강 2백리에 펼쳐진 자연사 박물관

향로봉에서 동북쪽을 향해 달려가다가 해금강에서 바다에 가리앉는 높고 양갈진 산줄기를 향로봉 산맥이라고 부른다. 향로봉, 건봉산, 작은까치봉, 큰까치봉, 월비산까지 금을 긋고, 남강을 건너 금강산 남쪽 산록을 따라 올라가 개간령을 넘고, 남강 상류를 건너 국사봉, 무산을 거쳐 다시 향로봉까지 금을 이으면 커다란 삼태기 모양이 생긴다. 이 삼태기 속의 옛 행정지명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그 삼태기 속으로 남강이 흐른다. 강은 금강산 유점사 부근에서 발원했다. 신개골 흑연(黑淵)까지는 백두대간과 나란히 정남향으로 흘렀다. 그 물줄기를 향로봉 산맥이 밀어냈다. 해삼대, 송어적에 이르러서는 강은 동쪽으로 흘렀다. 강은 사천, 고미성, 원대, 갈마고개, 사비, 형제고개, 사기점, 아랫마을까지 아름다운 강마을들을 만들며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드디어 토기점, 신대, 불당골, 백일포, 내면(內沔), 외면(外沔)에서는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처럼 정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옛고성 적벽을 지나 해금강에서 바다를 만나 77km의 장정을 마감한다.

백두대간은 동쪽으로는 강이라 부를 만한 물줄기를 터주지 않았다. 남대천, 북대천, 신계천, 북천, 오십천... 강이 되지 못한 천(川) 돌림의 물줄기들 뿐인데, 유독 남강만 강(江)자를 달고 있다. 그러나 그 강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강을 한 가운데 두고 DMZ가 밟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옛 수동면 강마을들은 향로봉 산맥에서도, 금강산에서도 지구 반대편보다 먼 곳이 됐다. 금강산 육로 관광길은 옛 고성 구읍리 적벽에서 남강을 건넌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 받은 땅은 언제나 제 구실을 못하는 법이다. 적벽이 얼마나 기막힌 풍광이었으면 남강을 적벽강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나 적벽강 적벽은 시시한 붉은 돌산이고, 돌산 밑 남강은 보통 개울이다. 하물며 그 강이 흘러온 200리 길 옛 수동면이야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수만 명 금강산 관광객이 그 강을 건너가고 건너왔어도 수동면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쪽에선 양갈진 향로봉이 가로막아서, 북쪽에선 금강산이 가로막혀 더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생각조차 넘어가 보기 어려운 그런 첩첩산중 깊고 좁은 골짜기여서 더 오래 잊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거진 우리의 잃어버린 과거가 묻혀있는 곳이다. 그 강과 살고 있던 물고기와 그 산의 나무 그리고 강과 산에 기대어 살던 과거 우리의 풍습과 풍속과 우리가 쓰던 말까지 고스란히 묻혀 있는 곳이다.

1923년 조선총독부는 이 커다란 삼태기를 고스란히 동경제대 연습림으로 지정 허가했다. 그때 만든 ‘동경제대 연습림 산림실태 조사자료’는 수동면 일대 금강산을 발가벗겨 놓고 있다. 지명, 산림면적, 땅의 경사도와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지황(地況), 그 땅의 비옥도, 수종, 수령, 기온, 강수량 그리고 임황(林況)지도를 자료로 조사한 것은 연습림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구, 생활상, 교통, 부락상황까지도 조사해 자료로 갖고 있었다.

연습림의 총 면적은 3만 481ha. 동경제대는 남강변에 자신들이 일본 내에 가지고 있는 7개 연습림을 다 합한 3만 2,449ha보다 더 큰 ‘자연사 박물관’을 금강산 산록에 그때 이미 갖고 있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실향 수동면민들의 기억 속에도 그 ‘자연사 박물관’은 모든 게 풍부하고 다양하다.

봄 남강엔 동해에서 먼저 황어가, 뒤따라 은어가 올라온다. 여름이면 송어와 칠성장어가,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온



연어

다. 그 바닷고기들이 코를 박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수백 개도 넘는 골짜기엔 바다에서 올라온 송어가 되돌아가지 않고 육봉화(陸封化)가 된 산천어가 지천이다. 물의 동네 수동(水洞)은 물 반, 고기 반이다.

동경제대 연습림을 관리하는 출장소가 신대리와 고미성리에 있었다. 동경제대생들의 사각모가 산협사람들의 향학열을 충동했다. 이 좁은 골짜기에 소학교가 5군데, 면소재지로서는 드물게 수동중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온 산에 빼곡했던 아름드리 금강송은 1930년대 중반부터 베어지기 시작했다. 남강에 보를 만들어 베어낸 적송들을 모았다가 터뜨려 바닷가로 실어 날랐다. 금강산 금강송은 일본 본토의 건축자재로 실려 가거나, 철도 침목으로 땅에 깔렸다. 남강 상류 사천리와 면소재지 신대리에서는 니켈 광산이 터졌다. 니켈은 트럭과 우마차에 실려 흥남제철소로 날라졌다. 그 수동면을 6·25전쟁이 마저 파괴했다. 그리고 지금 수동면을 DMZ가 차지해 버렸다. 일제와 해방과 인공치하 그리고 DMZ가 지배하는 파란만장한 땅, 이름도 잃어버린 옛 수동면으로 한줄기 기억인양 남강이 흐른다.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Chapter.

III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1. 문학 속으로 들어온 DMZ
2. 영화 속으로 들어온 DMZ
3. 정책 속으로 들어온 DMZ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1. 문학 속으로 들어온 DMZ



남북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그린 분단 문학은 한국 현대 문학사의 큰 줄기를 이뤄왔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 이후 좌우 대립과 6·25전쟁, 빨치산, 이산가족의 경험이 없는 신세대 작가들에게도 분단은 늘 문학적 주제이다.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할아버지 세대를 거쳐 아버지, 그리고 지금의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그 이념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한국 현실’ 때문이다.

특히 38°선이 그어진 이후 그 대립 선상에 놓였던 강원도 접적지, 즉 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양양은 자주 ‘작품의 현장’으로 소설속에 등장하고 있다. 그 만큼 이 땅이 가장 가깝게 분단의 대치선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 문학은 남북 분단의 사실적 탐구나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 분단 극복의 의지 등 분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문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문학평론가 임현영은 ‘8·15광복 뒤 분단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고자 올바른 민족 의식에 입

각해 창조하는 일체의 문학행위'로 분단문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48년 발표된 염상섭의 '훈풍', 분단문학의 기점이 된 최인훈의 '광장',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윤홍길의 '장마', 홍성원의 '남과 북', 이병주의 '지리산', 황석영의 '한씨연대기',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김원일의 '환멸을 찾아서',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 송기숙의 '당쟁', 이문열의 '영웅시대' 등이 분단문학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6·25를 소재로 한 전쟁문학도 분단문학의 범주에 들 수 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가인 유재용의 고향은 철원군 김화이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실향과 그 아픔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달빛과 폐허', '그림자'에서는 철원이 소설 속 주무대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전쟁전과 그후 민통선 이북 옛 철원마을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가 철원 출신이면서도 철원의 그 당시를 소설속에 재현하기 위해 '철원군지'를 구입해 탐독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중견 소설가 전상국도 분단문학에서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소설 '아베의 가족'은 6·25전쟁과 혼혈아의 아픔을 다룬 작품인데, 그 작품배경은 38°선이 통과하던 춘천시 사북면 인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의 비슷한 작품인 '지빠귀 둥지속의 빠꾸기'는 역시 접적지였던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일대를 무대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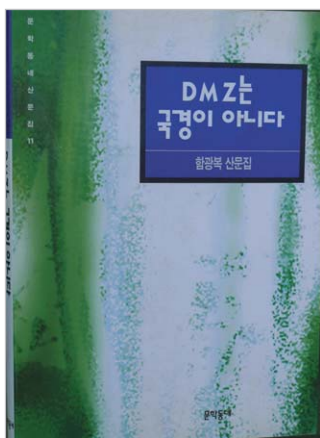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안정효의 대표작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춘천시 서면 금산리와 소양로 미군부대를 작품 무대로 등장시켜 6·25전쟁과 '양공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은 6·25를 전후로 한 소년의 체험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좌우 대립이 심했던 양양과 고성을 무대로 하고 있다. 소설가로 DMZ를 일주하기도 했던 임동헌은 '민통선 사람들'이란 작품을 통해 재건촌이었던 철원 대마리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6·25를 배경으로 한 지식인 의사의 갈등을 그린 황석영의 '한씨연대기'에는 속초 아바이 마을이 등장한다. 김하기의 '용늪 가는길'도 양구 대암산 용늪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밖에 분단을 소재로 강원도가 작품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오유권의 '이역의 산장(1994년 영화 '만무방'으로 소개)과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그리고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이 있다. 부분적으로 강원도를 다룬 작품은 박상우의 '말무리 반도',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가 있다. 요절한 소설가 '김소진'. 그는 철원출신으로 실향민인 아버지와 철원 사람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설 작품 곳곳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문학작품 속에서 분단을 상징하는 마음속의 강이다. 오영수의 '한탄강', 민영의 '추석날', 전상국의 '길', 강신재의 '임진강의 민들레', 고흥렬의 '문산', 김낙중의 '굽이치는 임진강'은 DMZ를 따라가면서 쓴 '로드 작품'이다.

DMZ는 전후세대 작가들에게 '병영문학'을 잉태케 했다. 비무장지대와 접적지 부대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이른바 '병영 문학'을 만든 것이다. 하창수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던 작가의 경험을, 이순원의 '1972년 겨울 직녀'는 군인가족 마을인 인제 서화면 천도리를, 김영현은 고성 포병연대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마음의 서부', '포도나무 집 풍경'을, 조성기는 '라하트라하랩'을 통해 춘천 사우동 공병여단 뒤 성문

교회에 얽힌 실화를 작품으로 썼다. 함광복의 'DMZ는 국경이 아니다' (1995년 문학동네)는 본격적인 DMZ 다큐멘터리다. 신문에 연재한 시리즈물을 순수 문학물만 출판하는 문학동네가 산문집이란 부제를 붙여 출판했다.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의 원작인 박상연의 'DMZ'도 크게는 분단문학, 작게는 '병영문학'으로 볼 수 있다. DMZ는 그 콘텐츠 카테고리에 문학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함광복 산문집

2. 영화 속으로 들어온 DMZ



6·25전쟁 당시 우리 공군은 F-51 무스탕 전투기를 이용해 한국공군 최초로 단독 출격을 감행해 혁혁한 전과를 세운다. 1951년 승호리 철교 폭파, 1952년 평양·원산 폭격 등. 6·25전쟁 당시 강릉기지 비행단장으로 있던 김영환 장군(작고, 당시 대령)은 현재 전투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최초로 착용한 사람이다. 국방일보 보도(2002년 3월25일)에 따르면 당시 김 대령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지량 장군과 추락한 아군 비행기 조종사의 수색 구조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다가 눈에 잘 띄는 색상인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빨간 마후라의 원조가 됐다는 것이다. ‘빨간 마후라’가 일반에 알려진 것은 1964년 영화 ‘빨간 마후라(신상옥 감독)’의 주제곡으로 쓰이면서부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평양 시가지 폭파 장면은 바로 철원 승일교에서 촬영됐다. 6·25전쟁 당시의 다리를 보여주는 데 승일교가 딱 맞았기 때문이다.

철원은 ‘빨간 마후라’ 외에도 독립운동, 6·25전쟁을 소재로 한 여러 영화의 전투 장면 촬영지이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1979년 이원세 감독)’, ‘무숙자(1968년 신상옥 감독)’, ‘마적(1967년 신상옥 감독)’, ‘평양폭격대(1971년 신상옥 감독)’, ‘낙동강은 흐르는가(1976년 임권택 감독)’, ‘황사진(1973년 김시현 감독)’, ‘지평선은 말이 없다(1966년 이신명 감독)’, ‘13세 소년(1974년 신상옥 감독)’ 등은 한탄강과 승일교, 철의 삼각지 등에서 촬영됐다. 철원이 1960~70년대 전투장면의 주 촬영지가 됐던 것은 지형 지세가 폭발선 등 전투장면을 촬영하는 데 적합할 뿐 아니라 별도의 세트 설치 없이 당시의 전장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는 자연 여건 때문이었다. ‘비류(1956년 이만홍 감독)’, ‘심청전(1962년 신상옥 감독)’ 등 전쟁영화 외 문예영화들도 철원 일대에서 많은 촬영을 했다.

2004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천 ‘꺼떡다리’는 1970년대 최

고의 반공드라마로 인기를 끈 '전우'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945년 건립된 꺼떡다리는 6·25전쟁 중에도 사라지지 않은 몇 안되는 근대 교량의 하나이다.

현재 강원도내 접경지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에는 6·25전쟁을 소재로 했거나 해방공간과 6·25전쟁 사이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을 배경으로 촬영 대상지가 됐던 곳이 수 없이 많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2004년 초 개봉돼 우리나라 최대 관객 기록(1,170만 명)을 세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 영화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형제의 드라마틱한 운명을 그린 전쟁드라마로 관객수 뿐 아니라 제작규모, 마케팅 등 영화산업 전반에서 한국영화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에 나온 대규모 전투씬 중 압권은 '두밀령 전투'. 영화의 클라이막스였던 두밀령 전투씬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 중부지방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를 담고 있다. 영화 속 '두밀령 전투'는 양구 '피의 능선 전투'를 모델로 한 것이다. '피의 능선 전투'는 1951년 8월18일~9월5일까지 양구 북방 방산면과 동면 일원에서 983, 940, 773고지 일대의 능선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 미 제10군단 제2사단 제38연대, 제72전차대대 B중대, 제9, 제10, 제22, 제23연대, 제5공군, 해병1사단, 국군 제5사단 제35, 제36연대, 제3사단 제18, 제22, 제32연대, 제7사단 제8연대, 제8사단 27연대, 제1해병 대대가 북한군 제12, 제27사단, 제6사단 13연대와 벌인 고지 쟁탈전이다.

전투 피해는 적 사살 1,250명, 포로 63명, 아군 전사 326명, 부상 2,032명, 실종 414명 등 피아간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결국 아군이 983 고지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단장의 능선을 공격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했다. 1980년 11월 백두산부대에 의해 피의 능선 전투 전적비가 세워졌다.

두밀령은 양구 북방 대우산 기점에서 남서쪽으로 6km에 있는 능선. 양구 동면 월운리에서 비아리로 가는 도로 오른쪽에 있다. 스펙터클한 전쟁화면을 제공한 이 장면은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됐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중심이 돼 양구 두밀령에 '6·25전쟁 희생자 추모비'를 세우자는 운동까지 불러일으킨 것.

이 영화는 촬영 규모 뿐 아니라 전국을 돌며 90일간 140여회를 촬영,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1·4후퇴 씬은 강원도 양구읍 고대리 강가에서 촬영됐다. 보조출연자만 5백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장면. 이 장면에는 양구군민이 대거 출연했다.

양구군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으로 촬영지이자 실제 전투 모델인 양구가 전국적으로 소개되자 2004년 8월 29일 방산면 두타연~이목정~궁골~백석산 전투기념관을 코스로 한 DMZ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당연히 마라톤 대회의 홍보 초점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현장을 직접 뚫다는 것이었다.

민통선이 보호한 '두타연'과 영화 속 6·25전쟁 전투지가 결합해 새로운 DMZ 레저문화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DMZ는 그래서 무궁한 가능성의, 숨겨진 '컨텐츠 창고'로 볼 수 있다. 이제 그 창고를 열어 먼지를 털고 단장만 하면 되는 것이다.

DMZ의 폐허와 잔재들이 반세기 후, 대중문화의 콘텐츠로 가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 역시 DMZ가 후세를 위해 남겨 놓은 또 하나의 보물일지도 모른다.

3. 정책 속으로 들어온 DMZ



1953년 7월 27일생인 DMZ는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2010년 현재 만57세,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훨씬 짧은 중늙은이다.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주요 제안

제안 내용	시기	비고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지대화	1971	F. H. Rogers(유엔군측 수석 대표), 군정위 317차 본회의
20개 시범실천사업 - 자유관광공동지역, 공동경계장 등	1982	국토통일원
평화시 건설 - 민족문화관, 상품교역장 등 설치	1988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DMZ내 평화구역 설정 및 평화 통일시로의 발전	1989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의 시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The Korea DMZ TBR) 계획	2001	환경부 등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등록 추진	2004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COMOS)
DMZ 생태·평화 비전 선언	2008	환경부
DMZ 평화생태 포럼 창설	2010	통일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 - DMZ 횡단 자전거길,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노년이 대개 그렇듯 DMZ도 젊은 시절 살아 팔팔 뛰던 기계나 용기, 무언가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욕망 따위가 소진돼 가고 있는 게 틀림없다. 머지않아 DMZ는 사라질 게 틀림없다. 그 때를 대비한 수만 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DMZ를 훌훌 걷어내 버리기에는 왠지 미련이 남을 뿐만 아니라, DMZ가 말끔히 제거된 어느 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란 당위성을 밀저름으로...

1970년 대 들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책제안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1971년 6월 12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17차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로저스(Feliz. H. Rogers)에 의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의가 있었다. DMZ 내의 군사시설물을 파괴하고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화' 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같은 해 국토통일원의 통일문제 세미나에서도 DMZ의

국제평화지대(International Peace Zone)화가 제안됐다. 이듬해 2월 12일, 당시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로저스의 제안을 수락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1982년 2월 1일 한국정부는 당시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측에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했다. 시범실천사업 가운데는 ‘자유 관광 공동 지역’, ‘자유 공동 어획 구역’, ‘공동 경기장’ 설정 등이 있다. 1988년 10월 18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통일 상징사업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즉,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민족문화관·학술교류센터·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며 폭넓게 교류·교환·교역할 수 있는 ‘평화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1989년 9월 11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DMZ 내의 적정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점차 ‘평화 통일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평화시’ 제안을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화 시킨 것이다.

1999년 9월,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BR)’ 지정 계획을 내놓았다. 이제까지 시도했던 DMZ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평화정책’이었다면, 이는 자연생태계를 매개로 한 ‘간접적 평화정책’이다. 2001년 환경인 신년 인사회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 생물권보전지역(The Korea DMZ TBR)’ 계획이 제안됐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앙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전략과 일정까지 마련했다.

2004년 7월엔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TBR)’과 함께 ‘세계유산(World Heritage)’ 지정도 제안됐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은 DMZ 일대의 자연 문화유산 보전은 물론 남북환경 문화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할 만 하다. 또 종전의 보전 계획들이 적극적인 자연환경 보전에 치중했다면 비로소 인문 사회학적 요소들까지 포함한 진일보한 보전대책이다. 냉전은 종식되더라도 DMZ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는 1971년 전세계가 더 이상의 생물권 파괴를 막기 위해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 MAB)을 제안하고,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한 육상 및 연안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 BR)'으로, 두개 이상의 영토에 걸친 지역은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frontier Biosphere Reserve : TBR)'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1982년 설악산이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뒤 1989년 백두산, 2002년 제주도, 2004년 북한 황해남도의 구월산에 이어 2009년 5월에는 전라남도 신안 다도해와 북한의 묘향산이 지정되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The Korea DMZ TBR)'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자연생태 및 문화자원의 유한적 존재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측에 공동 추진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군사적 대치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2004년 10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박물관대회(ICOM)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는 DMZ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 등록하자고 제안됐다. 그러나 북한은 'DMZ 세계문화유산 등록' 움직임에 대해 "비무장지대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북남대결과 군사적 충돌만을 초래하는 민족분열의 상징이고 통일시대에 하루빨리 없애버려야 할 북남 대결시대의 유산"이라며 반대했다. 북한중앙방송은 시사논단 프로에서 "비무장지대를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구실을 붙여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관광지로 만들려는 데는 명백히 이곳을 영구보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을 국제적으로 공인시키려는 범죄적 기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이 무렵 DMZ 일대의 자연환경 의식이 제고되면서, 민간인 통제구

역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1995년 환경부는 철원평야, 양구군 대암산·두타연 일대, 인제군과 고성군의 향로봉산맥일대 총 609.9km²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0년엔 철원평야 샘통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245호)를 확대지정 하려다 실패했으며, 2001년엔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나 ‘자연유산’ 지정이 DMZ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 보전관리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대적 제약이 있었던 것처럼, 민통선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정책에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적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2005년 8월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계보전대책’을 마련했다. DMZ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2008년 9월 26일 ‘DMZ 생태·평화 비전’을 선언하면서 2012년까지 ‘DMZ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DMZ를 생태계의 보고로 관리하고 세계적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DMZ 정책이 생태계 보전에 맞춰져 있다면 2008년 문화관광부가 밝힌 ‘평화·생명지대(PLZ:Peace Life Zone)’ 정책은 DMZ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이 초점이다. DMZ 관광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전망대, 전적기념관, 땅굴 등을 활용한 안보관광이 정착됐으며, 다시 자연생태 체험관광(철새관광), ‘병영 체험관광’ 등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평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PLZ 관광은 ‘달혀있던 땅, DMZ’를 따라 숨겨진 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고 철책선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를 기원하는 매우 특별한 관광 패턴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2009년 9월 2일 한국 DMZ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 국제 심포지엄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100대 국정과



DMZ 포럼

제의 하나로 추진 중”이라며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문명사적 전환의 관점에서 DMZ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닫혀있는 DMZ가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고 살아있는 생태환경은 우리 한민족과 전세계 인류에게 중요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DMZ가 뜨고 있다. 60여 년 그늘에 가려있던 그 땅에 쨍 하고 해가 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2010년 3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9개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DMZ 횡단 자전거길(강화~고성)’과 생태평화공원, 산림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고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 내의 대성동 마을 등 10개 마을을 ‘체류형 문화관광마을’로 꾸미는 것 등이 골자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평화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DMZ의 이들 희귀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DMZ 일원을 ‘생물권 보전지역’,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세계 생태평화공원, 고성에서 강화까지 총 495km의 민통선 지역에 자

전거 길인 ‘평화누리길’도 만든다.

환경부 그리고 문화부의 기존 DMZ 구상이나 정책은 손덜 것도 수정할 것도 없이 탄력이 붙었다. 통일부는 정부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각계를 아우르고 조정할 수 있는 DMZ 평화생태 포럼을 창설했다. 이 포럼을 통해 DMZ 가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동북아의 대표적 환경안보포럼을 발전시켜 남북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이다.

DMZ는 지금까지 부처를 초월한 이같은 관심과 대우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 DMZ의 2010년은 바야흐로 ‘DMZ 르네상스’다.



참고문헌

1. DMZ는 국경이 아니다, 함광복, 1995, 문학동네
2. 한국민족사 대관 '민간인 통제구역', 함광복, 1988, 2000, 정신문화연구원
3. 군사보호구역 일대의 관방유적, 이 재, 1999, 한림대
4. 접경지역의 자연생태환경, 조두순, 2000, 환경부
5. 상호 이익을 위한 DMZ 정책, 김재한, 2000, 한림대
6. 군사분계선의 영역과 비무장지대, 이문항, 2000, 한림대
7. From DMZ to ZOP(Zone of Peace), Johan Galtung, 2000, 유럽평화대
8. JSA-판문점(1953-1944), 이문항, 2001, 한림대
9.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함광복, 2002, 이스트워드
10.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전성우 등,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흐르지 않는 강, 함광복, 2007, 집문당
12. DMZ, 그 자연사적 탐방, 함광복, 2008, 집문당
13. DMZ, 뜻밖의 여행, 함광복, 2010, 한국DMZ연구소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 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 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 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 6)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 6)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2005. 9)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하였나? (2005. 9)
09. 남북한 IT용어 비교 (2005. 9)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2006. 3)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4)
12.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2006. 9)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2006. 12)
14. 북·중 국경무역과 북한의 시장실태 (2006. 12)
15. 알기 쉽게 풀어쓴 통일이야기 (2006. 12)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2006. 12)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2006. 12)
18. 북한의 의료실태 (2006. 12)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07. 12)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007. 12)
21. 북한의 체육실태 (2008. 7)
22. 북한의 문화재 실태 (2008. 12)
23. 북한의 대남전략 (2010. 1)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10. 1)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발행일 2010년 7월 15일

편집/인쇄처 (주)컴프리즈 전화 02)2279-4544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전화 02)901-7161~7 /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 매 품〉

